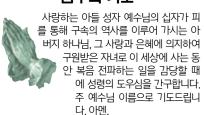
금주의 기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6월 15일 (토) 제 **1734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2019 성령강림절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지켜진 3대 절기들 이 있다.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이 바로 교회력에 서 가장 중요하게 준수됐던 기독교 3대 절기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력 중심의 예배와 목회보다는 세상의 달력에 의지하는 행사중심 목회나 담임 목회자의 사역에 치중하다보면 교회력과는 전혀 무관한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축하하고 잔치를 벌일 일들이 많았다. 결국 분주하다보니 정작 기 독교의 의미 깊은 날을 기억하며 이를 곱씹어보 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더 비약하자면 크리스 천들 사이에서도 잊혀져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특히 부활 후 50일에 만나게 되는 오순절, 즉 성령강 림절은 자꾸만 잊혀져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출23:14). 자손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뿐 아니 라 신앙인들이 당대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행사 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절기 를 지키라 말씀하셨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종교 적 형식을 넘어서 그 자체가 복된 행위가 된다. 따 라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따라 다시 한번 성 령강림절의 의미와 그 역사를 되새겨본다.

성령강림은 주 예수께서 약속 하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 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님은 창조 때에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 시며, 말씀과 복음의 증인이 되 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시고, 죄악과 불신으로 신음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 는 영이시다.

구원의 주 예수로 인해 이미 사단의 권세가 멸해졌지만, 아 직 사단이 미혹케 하고 있다. 성 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지 않으 시면 종말의 경악할 상황은 현 실이 됐으리라. 성령께서 지금 도 역사하시고 은혜로 세상을 붙드시기에 아직 이 세상은 희 망과 비전, 삶에의 용기가 계속 재충전되고 있다.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가볍 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일 어나는 모든 생명의 역사, 회개 의 역사, 중생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화의 역사

Our Counselor, Helper, the Holy Spirit 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증거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 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5,6) 오소서, 성령이시여!

종교개혁자 칼빈에 따르면 성 탄절, 부활절과 오순절은 성경 적이고 주일이므로 지키지 않 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주의 교 회에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의 관행도 사라지고, 또한 할례일 과 수태고지일, 그리고 승천절 의 절기준수도 점차 약화됐다. 하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 고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준수 하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의 소 중한 전통으로 남았다. 또한 사

순절 준수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었지만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청교도들 사 이에서, 때론 개혁신학자들 사 이에서 이런 절기준수 전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 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혁 주의 교회는 이 절기들이 기독 론 중심적인, 즉 그리스도의 구 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을 기념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존중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세교회는 1년의 신앙생활 을 위해 교회력을 만들어 지키 도록 했다.

〈3면으로 계속〉

미국인 사회주의 선호도 부상 중

뉴스위크, "국가발전에 기여" 여론 확산된다고 보도

인이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 남짓하다. 여론조사기 관 갤럽은 미국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사 회주의 선호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 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43%는 어떤 식이

사회주의가 국가를 위해 좋다고 믿는 미국 든 사회주의가 국가를 위해 좋다고 믿었고 51%는 사회주의가 국가에 나쁘다고 말했다 (.POPULARITY OF SOCIALISM SPIKING IN U.S., WITH 43 PERCENT NOW SAYING IT WOULD BE GOOD FOR THE COUNTRY).

이번 갤럽 조사는 1942년 로퍼 여론조사 센터·포춘 여 론조사 결과보다 미국인의 사회주의 지지 비율이 1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Four in 10 Americans Embrace Some Form of Socialism). 갤럽은 1942년 시행한 여론 조사를 두고 "사회주의를 향 한 미국인의 태도를 측정한 가장 오래된 설문 조사 중 하 나였다"고 설명했다. 1942년 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 번에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응답한 미국인도 11% 늘었 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사회 주의에 관한 호불호를 밝히 지 않은 미국인이 1942년에 비해 28%나 줄었다.

지난 4월 17-30일 조사를 한 갤럽은 응답자에게 향후 50년 동안 대다수 나라가 민 주주의 국가일지, 공산주의 국가일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일지도 물었다. 그 결과



29%는 대다수 국가가 사회 주의 정부를 택할 것이라고 믿었다. 1942년 조사에서 그 렇게 응답한 비율은 14%였 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그 외에도 미국인이 기술혁신, 부의 분배, 경제, 의료, 임금 문제에서는 정부의 통제보다 자유시장에 맡기기를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가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 각하는 유일한 사안은 소비

자의 온라인 사생활과 환경 을 보호하는 문제였다.

다른 사안에서는 응답자의 견해가 거의 비슷하게 갈렸 다. 미국 경제가 자유시장으 로 기울었다는 비율은 34%, 정부 통제 쪽으로 치우쳤다 는 비율은 40%였다. 또 25% 는 자유시장과 정부가 미국 경제를 균등하게 떠맡고 있 다고 응답했다.

(3면으로 계속)



김성국 목사



시론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12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민경엽 목사 김토마스 목사 손상웅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 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학렠로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 뉴저지) Tel.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 기독교서적센타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ever 우표 (평생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cbc0191@hotmail.c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면,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mark>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mark>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카일 아이들먼 / 규장

나를 돌아보는 시간 김유비 / 규장

나를 돌보는 시간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한홍/규장



행복예습 김형석 / Denstory



하늘에바다 아이 건설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이보영 / 대한기독교서회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mark>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mark> <mark>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mark>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카나다), <mark>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mark> <mark>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mark>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mark>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mark>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

컨대 대만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전면적인 입양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 보다 엄격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국가

도 있다. 동성간 관계가 불법으로 남아 있는 국가는 69개국이

다. 지난 금요일 케냐 고등법원에서도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

BBC는 뉴욕 존제이칼리지 사회학/형사법 전문 에미 아담칙

교수의 기고를 통해 지구촌 동성간 결혼에 대한 입장들을 알아

신뢰사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면 아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식당가서 음식을 먹을 때 주방장을 의심하여 음식 물을 조사하고 먹는 사람은 없다. 보스턴을 향하는 기차 를 타고 "이 기차가 워싱턴으 로 갈지 모르겠다"고 기관실 문을 두드리며 확인에 확인 을 거듭하는 사람이 누가 있 는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의사들의 조치와 말이 미덥

The Korean Christian Press

지 못한다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거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시와 다른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 는가.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이다. 이것이 허 물어지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나라도 엉망이 될 것이다.

목회자나 성도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참담한 일 이 어디 있겠는가. 얼마 전 버지니아의 한 교회를 섬기던 데 이비드 플랫(David Platt) 목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 졌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누구인가? "래디칼"이라는 책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제시해 왔고 그 자신도 부단히 참된 제자도를 추구하는 목사로 알려져왔다. 그런 그에게 지난 6월 2일 주일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 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목사님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길 바란다는 소식을 갑작스레 듣게 된 것이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복 차림으로 나타났 고 플랫 목사는 그를 회중들이 보는 강단 앞에 세우고 대통 령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목사의 기도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렇듯이 교회당 뒤에나 목 사 사무실에서 기도하면 될 일을 굳이 강단 앞에 대통령을 불러 세워 기도했어야 했냐는 것이다. 모든 정치가가 그렇 듯이 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비호하는 사람도 있다. 트 럼프 대통령의 여러 강력한 정책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 데, 이런 기도의 형태는 플랫 목사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공정한 모습이 아니었고 나아가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 같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플랫 목 사님도 당황했고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음을 그 다음날 밝혔다. 자신은 귄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를 했지만 그의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 게는 미안함을 드러내는 글을 썼다.

과연 플랫 목사님의 처음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 사과성 글을 쓰는 것은 진짜 용기 있 는 일이었는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예기치 못한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누구나 당황해한다. 모든 사람들에 게 선택과 행동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미처 작동하기 전 에 급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때에도 변함없는 원칙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자칫하면 그만이 가지 고 있는 원칙을 내 원칙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옳다 그르다 의 목소리를 높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일이 극 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의 자 리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목사의 어떤 선택에 대한 의 구심, 성도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의구심이 늘 잠복해 있는 것 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판단보다 신뢰가 아름답다. 그 신뢰로 간혹 후회어린 눈물 을 흘릴 일이 있다하여도 판단의 사회보다 신뢰의 사회가 에덴동산의 원형임이 분명하다.

동성결혼, 이제는 지구촌 쟁점이다!

BBC, 존제이대학 에미 아담칙 교수 기고 통해 전 세계 동성결혼 찬반 입장 소개

최근 대만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자 수백 쌍이 혼인신고를 하며 이를 기념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 최근 일이지만 대만 국민 다수는 동성끼리 법적 혹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응답자의 20%가 동성애를 사회가 받 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2013년 이러한 응답자의 비 율은 두 배로 늘어났다.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호주, 인도와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도 대중의 태도가 유연해지고 있는 것처럼

동성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점점 깊 게 뿌리내리는 국가들도 있다. 동성간 성관계에 징역형 처벌 을 내릴 수 있는 가나가 한 예

이곳에서는 동성애를 허용 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다. 2013년에 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는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공적 제재는 그 국가의 국민들 혹은 사회의 리더들이 가진 동성애 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지 이론은 국가 경제가 국민 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는 것이다. 여기에는 LGBT의

봤다(Why are some places gay-friendly and not others?)

났다.

민주주의에서는 평등, 공정 함, 저항권 같은 원칙들이 정

는 법안을 옹호하는 판결이 나왔다.

다. 이들 국가가 동성간 결혼 은 합법화의 최전선이었다. 덴 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 인, 스웨덴이 그 예다.

이슬람이나 보수적인 프로 테스탄트의 신앙이 힘을 발휘 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 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 분위기 가 높다.

절반가량의 아프리카와 아 시아의 국가에서는 동성간 성 관계가 불법이다. 이곳에서는 각각 국민의 60%와 98%가 " 종교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한 다.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높은 수치



경제발전, 민주주의, 종교 등 3가지 요인과 연결 세대교체, 관점변화, 대중미디어의 자유성 가속화

단초다. 예를 들어 부르나이에 서는 남성들끼리 성관계를 한 이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끔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 졌었다.

법적 측면과 사회적 분위기 는 보다 누그러진 듯 해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집단을 말하는 용어) 공동체가 처한 현실은 별개의 문제인 국 가들도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최근에 동 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혐오해 벌어진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끔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는 이 국가에서 LGBT 정체성 을 가진 구성원들이 그만큼 많 이 목숨을 잃었기에 나온 것이

그렇다면 게이와 레즈비언 에 대한 태도가 왜 국가마다 다를까?

연구자들은 이를 경제 발전, 민주주의, 종교 등 세 가지 요 인과 연결 짓곤 한다. 그 중 한 권리에 대한 입장도 포함된다. 국가가 가난할수록 덜 우호

적인 분위기를 가진 경우를 보 게 된다. 기본적인 생존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상황 이 생기곤 한다. 사람들이 깨 끗한 물, 식량, 쉼터, 안전 같은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되면, 타 인에게 더 의존적이 될 수 있 다. 이 의존적인 성향은 "전통 적인" 이성애 가족 구조 같은 가치 등을 더욱 지지하면서, 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시

반면 보다 부유한 국가 국민 들은 안심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갖곤 한다. 그러다 보 니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자유 롭게 내릴 수 있는지, 자기표 현을 믿을 수 있는지 등을 중 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부유 한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동성 간 관계에 포용적인 건 아니 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에서 는 부유한 국가들이 보다 우호 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 부와 국민의 행동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게이 나 레즈비언처럼 다르게 보이 는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 포용 되기 쉬워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민주주의 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슬로베니아 와 러시아 같은 구 공산권 국 가들이 관용적인 분위기를 신 장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한 듯하다.

종교의 역할 또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서유럽 국가들은 신앙심이 상대적으로 덜 두터 운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

보다 부유하고 보다 민주적 이며 사회가 덜 종교적인 국가 들이 더 동성애를 더 받아들이 려는 입장일지라도, 물론 예외 는 있다.

중국이 그 예다. 중국은 종 교적 믿음이 낮은 사회다. 하 지만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 은 대만인들에 비해 게이들의 권리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경제발전, 민주주의,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끊임없 이 변화한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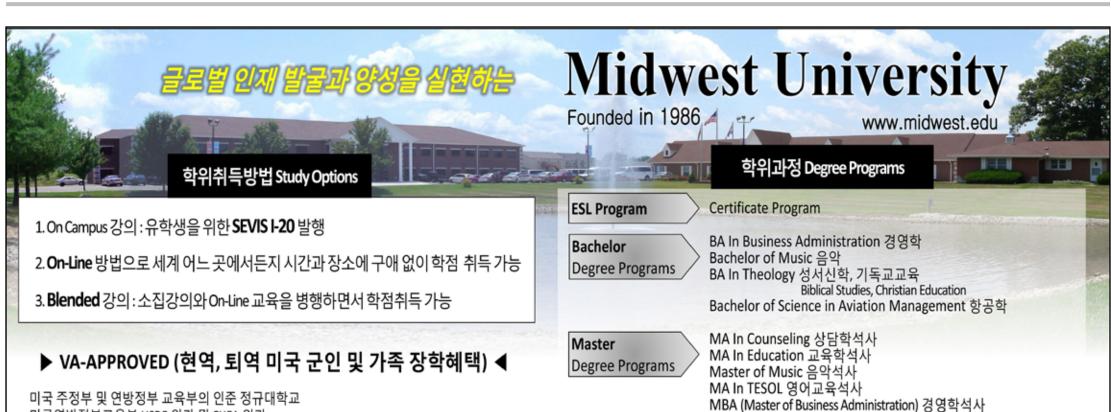


■ 발행인 겸 편집인: 김 성 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Tel.**(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코 Fax(718)886-4400(대표) (718)88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M.Div 신학석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Doctoral

Degree Programs

다리는

지상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1면에서 계속〉

이 교회력은 두 가지의 중심 요소로 이뤄졌는데, 하나는 그 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 를 비롯한 성인들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 회력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모든 성인들의 날을 폐지했다. 이유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 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에 대강절-성탄 절-주현절-사순 절-고난주간-부 활절-성삼위일 체주일 같은 전통 적 교회력은 그대

로 지켰다. 그리 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하게 여기는 개혁주의 전통의 절기는 지켰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 림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개혁 주의 교회 전통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단연 부활절이다. 하지 만 부활절과 더불어 성령강림 절 즉 오순절 역시 매우 소중

회시 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 들이 지키면 덕이 될 좋은 교 회절기다. 지상교회의 지체인



사회주의-43%(좋다) 대 51%(나쁘다) 기술혁신, 부의 분배, 경제, 의료, 임금문제는 자유시장에 온라인 사생활과 환경보호만 정부에

> 교회력이다. 그래서 지금도 개 혁주의 교회는 성령강림절을 준수하고 있다.

성령강림절은 새로운 시대 의 도래, 즉 주님의 재림을 기

모든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 도와의 완전한 교제를 기대하 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

났기 때문이다. 성령 없이 지

상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 무 것도 없다. 성령 없이는 말 씀설교도 신앙교육도 복음전 도도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 고 감동을 일으켜 순종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신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라곤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 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 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성령 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 거나 이웃을 사랑 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안 식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구원의 마지막 사건인 육 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도 불 가능하다.

미국인 사회주의 선호도 부상중

〈1면에서 계속〉

미국 의회가 지적했듯이 이 번 갤럽 조사 결과는 바로 얼 마 전 먼머스대학이 발표한 조 사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 다. 먼머스대학 조사에서는 사 회주의가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7% 로 상당히 높았다. 먼머스대학 이 미국 성인 801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42%가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고 1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지난 3월 자이르 보우소나 루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에서 사회주의 관점을 주창하 는 정치인을 비판했다. 버니 샌 더스 상원의원(무소속, 2020년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대통 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 다)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 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 당)이 거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 라와 쿠바 같은 나라를 지칭하



는 듯 "서반구에 사회주의의

런 시기가 왔다고 믿고 싶다. 황혼기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원치 않 "위대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는 것이 사회주의다."

동성결혼, 이제는 지구촌 쟁점이다!

〈2면에서 계속〉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 분위기와 정책은 왜 이토 록 크게 변했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의견은 구세대가 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세 대로 대체되며 태도가 바뀌었 다는 것이다. 연령대에 상관없 이 관점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가 가상으로나마 동성애자에 있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대해 알게 해준 것이다.

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서는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보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다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래서 현실에서 동성애자들과 가속화한 것처럼 보인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텔 레비전에 게이나 레즈비언으 로 등장해 꽤 대중적 인기를 얻은 캐릭터나 인물들이 있다. 시트콤 '윌 앤드 그레이스'의 윌이나 엘런 드제너러스 같은 인물이 그 예다. 동성애자를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 대중문화

친구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 가가 동성애자라면 마냥 혐오 접촉하는 것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에서는 22%의 응답자가 친 한 친구나 가족 중에 동성애자

가 있다고 답했다. 2013년에는 1993년 미국에서 진행된 조 이렇게 답한 이들이 65%에 달 했다.

〈13면으로 계속〉



시론

5G 시대의 목회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유소년 시절의 일이지만 나는 청 색전화, 백색전화를 운운하던 시절을 살았다. 대학생 때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당시 사람들이 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전화를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선으로 통신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 다가 90년으로 기억하는데 해외여행 을 가서 손에 무전기 같이 커다란 통 을 들고 길거리에서 전화를 하는 사

람들을 신기하게 쳐다본 기억도 난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 한국에서도 그 커다란 통을 들고 마치 자랑하듯이 전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그 시절에 그 통은 자랑거리였었 다. 그런데 이제는 그 통이 정말 작아졌고 이제는 접을 수 있을 만 큼 손 안에 들어오는 시대가 곧 열린다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더 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치 살 수 없는 것처 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달려 사는 형국이다. 이제는 모든 통 신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 있다. 이제 는 스마트폰이나 GPS가 없으면 운전조차 할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상용화된다고 하는 5G(Generation)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광고가 모두 5G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1G는 음성만을 무선 으로 송수신하던 핸드폰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G는 음성과 문자를 송수신하는 핸드폰과 삐삐의 결합 시대에 사용되 었다. 여기까지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다 가 3G 시대에 돌입했다. 3G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4G시대(LTE)다. 예전보다 열 배나 빠르게 음성과 문자,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 리가 산다. 앞으로 이동통신의 진화를 완성한다는 5G시대가 된다 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간단하게 말해서 1차선 도로가 10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다.

5G의 핵심을 요약하면 세 가지다. 우선 초고속이다. 속도가 어 마어마하게 빨라진다. 기존보다 만 배 이상 더 많은 트래픽을 수 용할 수 있는 대용량이 된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 받는 데 1초면 된다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초저지연성이 다. 스마트폰에서 보낸 데이터가 다시 단말기로 돌아오는 시간이 엄청 짧아진다.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것도 초지연성 때문이다. 5G의 지연시간이 0.001초라고 하니 우리의 감각기관 중 가장 빠 른 청각 반응시간(0.17초)보다 얼마나 빠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론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 셋째는 초연결성 이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개념이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다. 편리함이 극대화될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 결될 수 있다. 5G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의 문 을 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기우일까?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출애굽 3세대 현상'이라 는 말이 있다. 광야 세대가 1세대, 가나안 땅 세대가 2세대라고 한 다면 출애굽 3세대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면 정확할 것이 다.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 되지 못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출애굽 3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이런 세상이 되어가 는 현실과 5G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는 듯하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위 출애굽 3세대 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제대로 전수할 수 있을 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thechoi82@yahoo.com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미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신 분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포함)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온라인:http://www.daviskoreanchurch.org/dkcpsc

우편: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제출 기한: 2019 년 7 월 20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출은 e-mail (dkcpsc@gmail.com) 로 해주세요.

데이비스 한인교회 청빙위원회



Davis Korean Church

603 L Street Davis, CA 95616

GREAT TRUTHS OF THE BIBLE

알기쉬운 성경교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위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경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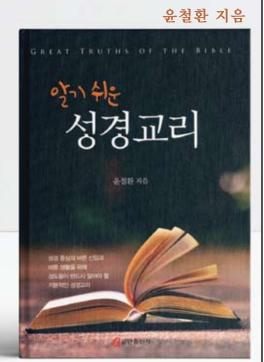
도서주문 연락처:215-527-2250 chulhwanyoon@gmail.com

가격: \$20.00(운송료 포함)

*선교사와 신학생은 \$10.00

성경교리는 성경의 뼈대와 같은 것으로, 성경교리를 바로 알면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술 있으며, 또한 이단 사상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_머리말에서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손수건

베니스에 있는 페니체 (Teatro Fenice) 극장에서 정 명훈 선생이 지휘하는 오텔로 를 관람했다. 인간 본성의 심 연을 들여다보게 하는 탁월한 지휘로 나의 속내를 들여다보 는 기회가 되었다. 오텔로는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오페라 로 만들었다. 작곡가 베르디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 험한 노년에 작곡한 아주 뛰 어난 작품이다.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 악을 도모하는 치열한 전개가 세상의 적나라한 단면 을 보게 한다.

오텔로는 무어인으로 베니 스의 장군이다. 무어인이란 피

부색이 까무잡잡한 북아프리 카의 모로코나 알제리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이방인이 베 니스 공국의 장군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유 능한 사람인가를 가늠하게 된 다. 그러나 세상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통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한다. 21세기 인 오늘날에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오텔로는 사이프러스의 총 독으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그 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방인이 최고의 장군으로 명 성과 인기를 얻고 있으니 당 연이 질투하는 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색이 무색무

취해야 할 바티칸도 불란서의 필립 왕이나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명하는 자국 의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극 렬하게 반대하곤 했다.

오텔로를 시기하는 무리는 기수 이야고와 베니스의 귀족 청년 로드리고다. 이야고는 오 텔로의 미남 부관 카시오 때 문에 부관이 되지못했고 로드 리고는 평소 연모하던 베니스 의 귀족가문이요, 미녀인 데스 데모나가 오텔로와 결혼함으 로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연유로 두 사람은 의기투합되 어 무어인 오텔로를 무너뜨리 기 위한 공작을 도모했다.

즉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련 하여 오텔로의 부관 카시오를 초청했다. 그리고 카시오를 만 취하게 하여 로드리고와 싸움 이 벌어지게 유도하였고 그 싸 움을 말리기 위해 나선 전 총 독은 까시오의 칼에 부상을 입 게 되었다. 이런 부하의 추태 를 보고 오텔로는 부관 카시오 를 직위해제하여 버렸다.

직위해제를 당한 카시오에 게 이야고는 오텔로의 부인, 데스데모나에게 용서를 간청 해보라고 충고했다. 이 요청을

좋게 여긴 카시오는 정원에서 데스데모나에게 남편에게 간 청하여 용서하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이야고는 오텔로로 하 여금 이런 은밀한 광경을 보 게 하여 질투심을 유발하게 했 다.

오텔로는 이방인 출신으로 아름다운 베니스의 여인 데스 데모나와 결혼하였으니 부인 을 사랑하는 만큼 불안한 마 음도 굉장하였을 것이다. 그 후 부인 데스데모나가 오텔로 에게 카시오를 용서하여 달라 고 하자 질투심이 폭발했다. 또한 남편의 이마의 땀을 닦 아주려고 하자 오텔로는 과격 하게 뿌리쳤고 그 바람에 손 수건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때 시녀는 손수건을 집어들었 다. 그런데 그 시녀의 남편은 이야고였다. 그는 아내로부터 손수건을 빼앗았다. 그리고 오 텔로에게 카시오가 손수건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거 짓말을 한다. 그 손수건은 오 텔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첫 번 째 선물한 것인데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오텔로는 분노에 이 성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복 수하겠다고 선언한다.

한편 이야고는 데스데모나 가 던져버린 손수건을 카시오 의 정원에 던져놓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데스데모나는 카시오를 용서하여주라고 남 편에게 재차 요청하자 그렇다 면 내가 당신에게 선물한 손 수건을 보여 달라고 하나 보 여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손 수건을 카시오가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고 한층 더 질투심 으로 흥분하였다. 결국 침실에 서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 도 가슴을 칼로 찔러 자살하 였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전 엉금엉금 기어가 아내의 발 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 작은 천 조각으로 만든 손수건 하나 때문에 말

이다. 대사가 오텔로의 공적을 칭 송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 지 않았다. 간교한 이야고, 그 것은 뱀을 통해 유전된 악한 전술이다. 뱀은 간교했다고 했 다. 그 간교함을 무기로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함으 로 죽어갔을까 싶다. 세익스피 어는 40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발굴하여 소설을 썼는데 이 시 대에도 이것을 무기로 이웃을 상해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을 까 싶다.

베니스에는 과거 오텔로가 살았던 집이 있다. 배를 타고 산마르코를 갈 때 왼편으로 카 지노를 보게 되는데 그 옆 흰 건물이 바로 오텔로가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아 내, 베니스의 지체 높은 귀족 이요, 아름다운 여인, 자신과 같은 이방인이 넘볼 수 없는 신분의 여인을 사랑한다는 일 은 결코 녹록치 않음을 깨닫 게 한다.

더 나아가 질투가 얼마나 사 람을 잔인하게 하는지를 오페 라는 우리에게 교훈한다. 작은 천으로 만든 손수건 하나가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또 한 두 사람을 질투에 눈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야고도 평 생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다. 질 투가 투영될 때 인간은 얼마 나 어리석게 되는지를 오페라 는 우리에게 교훈한다. 작고 하찮은 손수건 하나로 인해!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경종 목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에 동 상 하나가 서있는데, 관광객들 은 묘하게 생긴 이 동상을 보고 처음에는 모두 웃는답니다. 하 지만 그 밑의 글을 보고는 많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상 의 형상을 보면 앞머리는 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이 며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 려 있고 양손엔 각각 저울과 칼 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그 모습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회라고 여겨질 때 쉽게 잡 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하 며 일단 지나가고 나면 붙잡지 못하도록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양발 뒤꿈치의 날개는 기회를 잡은 사람과는 높이 날 아오르고 기회를 놓친 사람으 로부터는 재빨리 도망치기 위 함이라고 하니 찾아온 기회를 잘 포착해야한다는 교훈을 주 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때'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 이 높은 것처럼 믿음의 기회도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 때가 바로 '언제나, 늘, 항상'이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바로 지금, 오 늘 현재'입니다. 고후6:2절에 "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 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 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주님의 애틋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렇 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 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이 음성을 듣고 우 리 모두가 아멘으로 주님의 초 청에 화답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 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 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 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서 함께 가자."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 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와 성 도의 모형입니다. 역사가에 의 하면 술람미 여인은 뛰어난 미 모도 없고 삶의 배경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농부의 딸로 천 한 신분을 가진 여인에 불가합 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살고 있 는 농촌 마을에 솔로몬 왕이 찾 아왔는데, 솔로몬은 그만 술람 미 여인을 보고 한 눈에 반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 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에 게 위기는 더욱 사랑하는 기회 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 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 닌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신했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 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 다. 스바냐 3: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 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 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 르며 기뻐하시리라." 참으로 뭐 라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 버지의 간절하신 마음이 느껴 지지 않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께서 죄인 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이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듣는 우 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바냐 3:17절의 말씀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가 아

서 서로 사랑할 때" 열심히 서 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 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우리도 이 놀라 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이 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 고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2.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 서 은혜 안에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

나."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의 다 정함에 비유하면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에서 '소리'라 는 말은 '달콤하다' 혹은 '기쁨 을 준다'라는 것으로 성도된 우 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소리 를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우리 주 님은 벙어리 신부와 교제하기 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으로 결 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행복이

영혼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우 리는 항상 신랑 되시는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 히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 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 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 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 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아침마 다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 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서 큰 소리로 감사 찬송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 로 축복합니다.

3.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 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 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 이 피었음이니라."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포도 꽃필 무렵에 작은 여우들을 경 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우 들이 하도 많아서 포도원을 망

전5:8절에서 "우는 사자와 같 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안팎으로 공격 해옵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문 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을 무너트리려 합니다. 이미 창 세 이후로 인류가 죄 가운데 빠 지면서 마귀는 육신의 오감을 자극하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 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 스러운 유혹으로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12:2에서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 화를 맞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 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 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세상 속에 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믿음으로 싸워서 물 리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 니다.

또한 작은 여우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숨어들어 있다는 사 실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누구 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작은 여우를 품고 태어납니다. 다행 이 어떤 사람은 일찍이 신앙으 로 작은 여우가 있음을 알고 물 리치기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작은 여우의 교활함과 거짓에 속아서 오히려 그 종자가 번식 하여 온통 여우 소굴이 되어버 린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딤전 1: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 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 음과 착한 양심을 동등한 위치 로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 심을 가지라." 세상을 살아가면 서 그 누구도 착한 양심 앞에 자유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하나 님께서 태초에 주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인 착한 양심을 위하 여 몸부림쳐야할 때가 지금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착한 양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엡 5: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 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 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 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

logosnews@hotmail.com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17절

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대로 우리의 가정 과 교회나 삶의 현장에 거친 들 과 같은 원치 않은 어려움이 밀 어 당치기도 하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 왔을 때 저들이 사랑으로 극복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 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족과 성도 간에 서 로 사랑할 때 위기가 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 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 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엡3:17절에서 "그리스 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 물과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닐까요? 성도된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자 신의 방법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 에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 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벤전 4:8절에 "무엇보다도 열 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런데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 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 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어 성경은

'Deeply'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깊이 혹은 강하게' 라는 뜻으로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깊이, 진실로 사랑하는 길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 님의 사랑을 본받아 "말씀 안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대화가 아 닐까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속 삭임, 사랑의 표현이 험한 세상 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 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주 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으로 다정한 대화 즉 은혜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 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로 대화하며 극복 해 나가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세 상을 이기는 능력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정이 행복할리라 없습 니다. 이처럼 기도가 멈춰버린 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 문입니다. 특히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헤집어 놓고 꽃을 다 떨어지게 해서 결국 열매를 맺 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 리 신앙의 결실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버리는 작은 여우는 무 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생활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는 어떤 것 일까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깨뜨리 는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어떻 게 다가올까요?

여우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 십니까? 한 마디로 여우는 교활 하며 간교합니다. 의심이 많고 가식적이며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잘 보이 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어 우리 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작은 여우로 비유된 말씀이 벤

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안팎으 로 있음을 알고, 마귀를 믿음으 로 대적하며 싸워서 믿음과 선 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 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매춘부까지 고용한 낙태 대기업 Planned Parenthood, 어디까지 가려는가?

데일리메일에 보도된 충격적 주장에 따 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낙태 제공기업 중 하나인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이 공 식 행사에 참석한 직원, 기부자 및 손님 들을 위해 매춘부 고용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3월에 상영된 "Unplanned(실화바탕)" 영화를 통해 플랜드 패랜후드 (Planned Parenthood)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 고 있습니다.

수개월간의 스캔들

지난 1월,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낙태 거대기업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사실들 이 계속 드러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성적 부정행위와 부패 혐의에 대 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무려 1 억32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플랜드 패 랜후드에 지급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

다. 부서 내부 문서에 따르 면, 이 낙태기업의 최대 해 외관할사무소 중 한 곳에서 성희롱, 괴롭힘, 학대 행위 및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협 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 고, 한 여성 간부에게는 그 녀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음란동영상을 보낸 것으 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 학대 및 성매매, 성상납 혐의 현재 이 의혹으로 해임된 아프리카 지 역 책임자인 Lucien Kouakou는 IPPF가 몇 년 동안 아프리카 행사장에서 손님들 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등의 충격적 인 주장도 했습니다.

많은 문서와 검증된 내용 중 하나는 지 난 2월 제출된 케냐 법원문서에서도 "이 전 플랜 패랜후드(PP) 리더십 하에서 이 지역이 '조직의 공식 업무 중 손님들을 위 해 매춘부들의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적 혀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IPPF

이 단체에 대한 초기의 혐의들은 자선 금으로 더 이상 펀딩(funding)하는 것을 위원회가 규제준수 여부에 관한 케이스 차단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대신 를 시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영국 잡지 그 자금들은 국제적으로 진실로 필요한 번호로 가지고 다니고, SB24(Chemical The Third Sector에 따르면, 스캔들의 규 모는 단체 이사인 Bermejo 가 사임할 정 도로 큽니다(그는 최근 IPPF의 변혁을 주 도하고 싶다면서 사임 의사를 철회함).

부패와 스캔들의 수위는 또한 미국, 아

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를 포함한 서반 구 지역의 45개 회원 협회가 런던에 본부 를 둔 연방(federation)에서의 탈퇴를 이 끌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직원들은 "IPPF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 합니다.

"안전한 낙태, Safe Sex," 어쩌면 이런 단어들은 매혹적이고 세련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플랜드패랜후드가 전하는 매혹 적인 말과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 혀 일관성이 없으며, 전혀 안전하지도 유 익하지 않다는 것이 계속 폭로되고 있습 니다.

낙태기업에 들어가던 자금들을 차단 시키고 여성클리닉으로 자금을 돌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감사하게도 영국의 상황과는 달리 미 국은 지금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의 존엄성" 운동 지휘아래,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플랜드

패렌후드에게 매년 주던 수억만 자금(세

금)을 연방차원에서 정지시키며 플랜드

패렌후드에게만 갔었던 60밀리언 달러를

뿐만 아니라 그 자금들을 신앙을 토대

로 하거나 진짜로 여성들과 임신한 여성,

가정, 청소년들의 건강과 미래를 돕는 여

성 의료클리닉들에게 나눈다고 지난 2월

또한 지난 3월에는 국제건강협회로 들

어가던 낙태비용과 "인권, 차별금지"라는

명목아래 동성애 성관계를 옹호하기위해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을 했었던 비용들 역시, 국민들의 세

Planning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대사였던 Nikki Halev는 "아기가 살

차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에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야할 권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초/기본 적인 권리이다! A Baby's Right to Live [is] the Most Basic Right There is"라고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 동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 려드렸듯이 민주당에서는 이미 36번째 " 태아살인 정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참조: http://tvnext.org/2019/05/antiinfanticide-bill/),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뽑혔던 연방판사들이 트럼프 행정 부가 플랜패렌후드로 가는 자금 차단과 "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에 강렬히 반기를 들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고 있는 플랜패렌후드 니다.

태아의 장기를 판매하 사에 참석한 자들에게 ' 성상납'을 한다는 것은 이미 플랜패렌후드가 앞

리"를 위하는 단체가 아닌 여성을 도구화 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악한 기업 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

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좌 파 진보주의자들은 하루빨리 이 단체의 드러난 진실을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중

기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에서 성 교육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번에 캘리포 니아 민주당에서 나온 AB 624이라는 법 안에 의해 모든 초등학생들이 학생증 뒤 에 플랜패렌후드 전화번호를 이머전시 여성과 태아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 Abortion Bill)에 의해 대학교안에 위험 한 시술소가 생겨난다는 사실이 소름끼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로 알고 기도…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플랜패 렌후드 기업의 도덕성이 이젠 국제적인 규모의 충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 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

> 가 마치 사회의 정의(여 성운동)를 실현하는 단 체로 알고 있는 무지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

> 는 것도 모자라 공식 행 에서 외치는 "여성의 권

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비 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적 문란함의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는 Family 치도록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 더 자세한 것은 Tvnext.org에 가서 참 주하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여성 리더입니다. 지난주에 그룹멤버 중에 아픈 자매가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 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 하는데 그래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도 되는 지요?

-팔로스 버디스에서 김

A: 성경공부 그룹리더로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사역에 임하시 는 자매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에 투자하는 사역인데 첫째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전도 요 그 다음이 어린 크리스천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삼는 사역입 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다가 그룹멤버 중에 아픈 자매가 있으면 함 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자매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세요.

신유에 대하여 파이퍼는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신유의 역사가 일 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병 고치는 은사로서의 신유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에 어느 무명의 목사님이 쓴 책 "영적 성장과 영적 예배"(도서출판 바 울, 2001, p.271-272)란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분이 기도원에 입 산하여 기도하는데 한 노인이 길에서 쓰러져 뇌혈관을 다친 분이 병 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아내인 할머니의 인도로 기도원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계속 그 노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해주

치유은사 없어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보니 노인의 팔과 손이 부자 연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한쪽 팔은 가슴에 거의 붙다시 피 했고 손가락은 갈쿠리처럼 구부러진 채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노인의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때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노인의 다섯 손가락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자의 팔의 관절도 기도할 때에 부드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때 세수를 하고 돌아온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가 눈길에 넘어져 팔을 심하게 다쳤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관절이 굳 어져 수술조차 힘들다는 말을 듣고 굳어진 채로 17년이 지났다는 것 입니다. 그 날 아침에 그 노인의 팔과 손가락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 셨습니다. 노인과 그 노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목사님을 사용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 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로 말미 암은 신유의 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유의 역사는 늘 있거나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기 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이고 대규모의 신 유의 사역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은 신유 의 은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쫒아내고 병 고치는 일 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신유위한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없다고 영분별을 아 예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성악가가 아니라고 노래를 부르 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전문요리사가 아니라고 요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유은사가 없다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치유은사가 없어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 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는 수 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현장에서 이런 일을 수 없이 경 험했습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유	전면칼라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170111 / 27.00111	Back 면	\$3,500.00
豆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광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막)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imes$ 5.8 cm		\$350.00
우		7.7cm × 11.7cm		
2	전면1/8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내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	·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		영문:	
무료	② 교회(기관)주소		
리	③ 교회전화 &팩스	Tel.() Fax.()	
스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팅	5 사택주소		
신			
청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서 서	7 E-mail Add.		
^	8 Web Add.		
	9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브라즈 바카(Braj Bhakha)



윤리 언어 종교 그리고 사회 의 한 그룹으로써, 인도는 모 자이크와 같이, 비교적 다양하 고 복잡한 형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도를 묘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전체인구가 무려 9억3천5백 만 명에 달하며, 인구밀도 또 한 1평방마일당 762명이나 되 는 고밀도 지역이다.

인도는 히말라야, 북부 강-평야지대, 데칸 그리고 동서 가트 산악지역 등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수많은 지역 적 특색과 기후조건 등은 계절 적으로나 지역적인 면에서 광 범위하고 다양하며, 온도는 열 대성에서 부터 극한의 온도까 지 높은 지역 온도를 보인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이러한 복잡한 인도의 문명 속에서 1천4백6십만명의 브 라즈 바카족을 찾을 수 있다. 주로 비하르, 마드해 프레데 쉬, 우트라 프레데쉬 지역에 거주하는 그들은 사용언어가 인도-아리안어(Indo-Aryan) 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제외하 고, 생활방식이나 특성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삶의 모습

조사에 따르면 인도 전체인 구의 73% 정도가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형태가 대부분 소규모이

거나 하찮은 수준이어서,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할 뿐 아니라, 자급자족하기에도 모자란 형편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목축업은 농업경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은 주로 뿔 달린 가축이나 당나귀, 말, 들소 등을 주로 기른다. 하지 만 힌두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축들을 먹는 것은 금기시되 며, 대부분 가축들은 짐을 운 반하거나 교통수단의 하나로 사용된다.

중

수많은 브라즈 바카족이 살 고 있는 우트라 프레데쉬 지 역에는 7개의 힌두성지 중 하 리드와, 마투라, 바라나시, 아 요드햐 등 7개의 힌두성지 중 4개를 보유한 지역이다. 그중 아요드하는 라마신과 비슈뉴(힌두교 3대신 중 하나, 세계의 보호, 보존자)를 믿는 지역으 로 유명하다. 그리고 비하르지 역에 거주하는 다른 브라즈 바카라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 하며 쌀, 보리, 옥수수, 사탕수 수, 밀 등을 재배한다.

인도문화는 힌두교의 기원 에서 찾을 수 있다. 카스트 신

분제도를 포함한 여러 힌두교 의 특성들이 인도문화 곳곳에 숨어있다. 참고로 카스트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삶, 인생, 양육 등의 뜻을 가진 단 어다. 인도사회는 카스트제도 안에서 같은 신분끼리의 결혼 을 원칙으로 한다. 몇몇 예외 가 있기는 하지만 카스트의 신분은 그들의 직업이나 신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인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 카스트제도 는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카 스트제도 안에서 브라즈 바카 족에 대한 위치나 정보가 부 족할 뿐 아니라 그들만의 생 활방식과 문화에 대해서도 알 려진 바가 거의 없어 그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신앙

브라즈 바카족의 99.5%가 힌두교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 고 있다. 그렇다면 힌두니즘의 뜻과 기원을 무엇일까? AD 1200년경부터 힌두니즘이라 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힌두교라는 종교 자체가 갖는 의미나 기원 등에 대한 의견 이 분분하고, 창시자 또한 불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론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며, 종교라 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 서양 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힌두니즘 은 그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전통이 부족한 면을 보인다. 수백년을 거치는 동안 힌두교 의 관습이나 믿음. 여러 모습 들이 변화를 겪게 됐는데, 특 히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 특정한 교조와 체계를 갖지 못했으며, 다양한 신화와 의례제도 및 관습 등 을 포함한 민간신앙의 복합체 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초월 적 존재,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누군가가 평생을 채식 주의자로 사는 동안, 다른 누 군가는 사원에서 신께 바칠 제물을 위해 기꺼이 육식을 먹기도 하고(힌두교도들은 대 부분 채식주의자들이지만, 전 사계급인 크샤트리아들은 육 식을 해도 신분에 손상을 입

지 않는다고 한다), 누군가에 게는 종교가 매우 개인적인 일에 지나지 않지만, 누군가에 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힌두 교인들의 삶이다.

힌두교인들 대부분은 그들 의 3대신인 브라만(창조자), 비슈뉴(보존, 보호자), 시바(파 괴자)와 샥트리여신을 숭배한 다. 또한 다른 여러 종류의 신 들을 섬기기도 하며 그들의 친척, 배우자, 성육신 심지어 자손들까지도 섬기기도 한다. 환생 안에서의 믿음은 힌두교 에서 일원화되지 않은 특성 중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브라즈 바카족은 자신 들의 언어로 번역된 새로운 신약성서를 갖고 있으며 비교 적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하 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 전 체인구의 1% 밖에 되지 않는 미비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선 더욱 많은 기독교적 정보의 제공과 함께 브라즈 바카족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 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 활동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무부,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불허…"

미국 국무부가 6월 '성 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무지개 깃발을 내걸어도 되느냐는 각국 미 대사관 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워 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관례처럼 이어져 오던 무지개 깃발 게양을 지난해 승인 대상으로 바꾼 데 이어 올 해 처음으로 불허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WP는 이날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 올해 이스 라엘과 독일, 브라질, 라트비아 등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어도 되느냐고 본 부에 문의가 왔지만 모두 불허됐다고 전했다.

원래 무지개 깃발 게양은 대사관 차원에서 알 아서 결정해도 되는 사안이었으나 마이크 폼페 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부터 본부 의 승인을 받으라는 공문이 각 대사관에 배포됐 고 작년에는 대사관의 요청이 모두 수용됐지만 올해는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 WP는 설명했

WP는 대부분의 대사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일부 대사관에서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 고 있다면서 저항의 의미일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건물 전면에 무지개 깃발이 게시됐으며 인도 센나이 의 총영사관에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인도 뉴 델리의 미국대사관은 무지갯빛 조명을 설치했 고 오스트리아 빈의 대사관 웹사이트에도 성조 기 밑에 무지개 깃발을 게양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루살렘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외 교관들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진에 동 참했으며 일부 대사들은 현지에서 열린 기념행 사에 참석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WP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성소수자 인 권을 위한 성명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았다면 서 그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공화당 소 속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 통령이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금지하려 하는 등 성소수자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영국 주류교회 쇠퇴, 아프리카오순절과 힐송 성장

영국에서 아프리카 오 🏻 순절 교회와 힐송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크리스 채너티투데이(CT)가 최 근 보도했다.



반면 영국 성공회와 같

은 기존의 교회들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3대 교단은 영국 성공회와 장로교, 로마 가톨릭이다.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16% 감소했 다. 그러나 '힐송 런던 캠퍼스'와 '아프리카 오순 절 교회'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힐송 캠퍼스는 호주의 힐송교회가 전 세계에 세우고 있는 캠퍼스 중 하나다. '힐송 뉴욕' '힐 송 이스라엘' 등 해외 캠퍼스가 있다.

런던 도미니언 극장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힐송 런던'예배에는 5000명이 모인다. 이 중 70%가 25세 미만으로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최근 힐송 런던은 예배 장소가 협소해 두 곳의 극장을 추가로 빌렸다.

로버트 벡포드 영국 캔터베리대 신학 교수를 "젊은이들이 힐송의 실제적인 설교와 역동적인 예배에 열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오순절 교회는 '동일 언어 공동체'가 성장의 이유다. 교회 성장 전문가 도널드 맥가 브란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한다"며 아프리카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로마가톨릭, 주기도문 일부 변경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 코 교황이 전통주의자들 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 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 된 주기도문의 일부 변경 을 공식 허용했다고 크리



스천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허용 한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이다.

더 유에스가톨릭(US Catholic)은 "교황청이 지난 5월 22일, 16년 간 연구를 통해 신학적, 목 회적, 그리고 형식적 관점에서 현재의 번역에 있는 오류를 발견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라 이 같은 변화를 법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주 기도문 후반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시고'라는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지지를 보 냈다.

당시 그는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 지 않으신다. 우리가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 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처럼 묘사한 이 번역은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자 는 사탄이다. 이것은 사탄의 역할"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고'의 영문이 기존 'Lead us not into temptation'에서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장신대학교 김철홍 교수(신약학)는 " 주기도문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기보 다 고난과 핍박과 같은 'painful trial'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하나님도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 진흙과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시험'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헬라 어는 페이라스무스(πειρασμόν)이고, 동사로 페 이라조(πειράζω)이다. 이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 기, 시편 등 구약에 자주 나온다"면서 다음과 같 은 구절들을 소개했다(창22:1, 출15:25, 시 26:2).

또 "신약성경에서도 '시험'은 제자들의 삶의 피할 수 없는 특성이었다. 예수님도 시험 가운 데 계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하면 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단련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이는 또 초대교회의 간청이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일상적이었던 당시의 기도라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단 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도 맞다.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용례와 히브리어 단어를 고려했을 때, 주기도문의 시험 을 사단의 시험으로만 보는 것은 좁은 이해이 다. 사단의 시험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 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 도해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정말 인간적인 기도 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톨릭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동일한 선상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래의 의미 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주기도문 을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전적 가늉…김정은에 열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전 적으로 가능하며 열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미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며 김 위원장에게 재차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 된다. 대북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 혼선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에 "전적으 로 가능하며 정말로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 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준 비될 때 우리도 준비되는 것"이라며 "그들이 (3 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고싶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경제적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고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면서 "그들이 해야하는 것은 핵무기 추구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은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을 하지 않겠 다는 것이었고 이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 들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 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최대압박 캠페인을 계속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는 입장 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노출했던 것 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고 내가 2006년에 첫 유엔 제재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를 안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중인 지난달 27일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나는 다르 게 본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마이 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아마도 유엔 결의 위반일 것"이라며 애매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북정책 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일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 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는 사실이다. 그들은 (ICBM)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허위정보를 심고 대통령 과 참모가 분열됐다고 말하려 한다고 믿을 상당 한 이유가 있고 이는 놀랍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정책 혼선 보도를 북한의 탓으로 돌렸다.

볼턴 보좌관은 뉴욕타임스(NYT)가 자신의 나루히토 일왕 주최 국빈만찬 불참을 트럼프 행 정부 내 대북정책 불일치의 일환으로 보도한 것 에 대해서도 "감기에 걸려서 만찬에 가지 않았 고 감기를 떨쳐내려고 자고 있었지만 그들(언 론)은 물어보지 않더라"라고 해명했다.

그는 "숨은 진실은 이것이다. 외교정책에 있 어 동맹국 내에도 불일치가 있고 (원래) 이런 식 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나는 국가안보보좌관 이고 국가안보결정권자가 아니다. 모두 작동방 식을 이해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대만을 국가로 공식지칭…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 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 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것이 확인됐다. 미 국이 지금까지 존중해오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것이서 중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1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 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적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와 함께 대만을 포함시켰다"고 7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 서에서 "이들 네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임 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 고 있다"고 썼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 인 적은 있지만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MP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 번에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를 인정하며 기존 원칙을 부정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돼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SCMP는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미 국방부가 답변하지 않았 다고 전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러 차례 흔들어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미국 대 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만 안보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데이 비드 리를 직접 만났다.

미국은 또 대만에 총 20억 달러(2조3560억원) 의 무기를 판매할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 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 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 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www.chpress.net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5. 염광섭(1895-1981)

염광섭은 1895년 12월 5일에 서울 에서 태어났다. 그는 휘문의숙을 졸 업하고 1914년 유학차 도미하여 1916년에 미국 미시시피 주 메리안의 메리안 대학에 입학하여 문학과 피아 노를 전공하다가 켄터키 주 윌모어에 있는 아쉬버리 대학에서 수학했고 1919년에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에 있 는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

이해 여름 아이오와주 드모인에서 열린 선교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했 을 때 동족 유학생들끼리 연락 유대 를 가지고 있음을 안 후 한인 유학생 모임을 구상하면서 시카고를 방문하 였다.

시카고 기도처 인도자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공부를 마친 염광섭은 한인유학생회를 구상하면 서 1922년에 시카고대학에 입학했다. 이 무렵 그는 레인 팍 에비뉴 39가의 김일선 부부가 경영하던 셋집의 방 하나를 무상으로 얻어 타 지방에서 학비를 벌려 시카고에 오던 한인 유 학생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학생센터 를 꾸미고 이 방에서 기도회를 시작

이 기도회는 교역자 없이 진행되었 으나 신학을 공부한 염광섭의 지도하 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듬해 시 카고 북쪽 링컨 애비뉴의 강영소의 집에서 또 다른 기도회도 있었는데 염광섭은 황창하와 현정염과 함께 참 석하기도 하였다. 염광섭은 1923년에 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

시카고 한인교회 전도사

1923년 10월 북쪽 기도회 주최로 공동회가 열렸을 때 시카고에 한인교 회 설립을 결의하고 이를 위하여 111 달러의 헌금을 모았다. 그때 북미 유 학생 총회장이었던 염광섭은 거금 25



청년 염광섭 (1926년)

달러를 헌금했다. 이듬해 3.1독립만세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김창준 목사가 유학차 시카고에 도착 배 후 행정부와 이사부를 조직했다.

염광섭은 장세운과 함께 전도사로 피선되어 담임목사 김창준과 전도목 사 조희염과 함께 교회를 섬겼다. 그 의 전도사직은 1928년 말까지였으니 3년 5개월간이었다.

1926년 1월 1일 하오 6시에 이사 김 경이 경영하는 워싱턴 카페테리아 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축 하회가 있었다. 애국가를 부른 후 양 득과 김 경이 개회사를 한 후 염광섭 이 '객지에 당하는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이날 연설 에는 황에스더의 '신년 신월 신일'과 김창준 목사의 '내 동포'도 있었다. 독 창 등 음악순서도 있었고, 여흥회도 있었다.

그해 9월 4일 슈츠 감리사가 설교 하고 성만찬을 집전했다. 이는 본 교 회에서는 처음 있는 성만찬이었는데, 염광섭에게도 처음 있는 성만찬이었 을 것이다. 이전의 김창준 목사는 한 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지만, 시카고 한인교회 시무 당시 미국 감리교단의 정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할 수 없었는지 모른다.

그달에 시카고대학 박사원에서 다 년간 종교철학을 연구하는 염광섭이 주미 학생회 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전 도를 위하여 상항과 나성을 방문하였 다. 이로 보건대 그는 학생회를 위한 전도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본

염광섭이 결혼한 1927년의 12월 2 일에 본 교회 영접 위원이었던 그는 다른 세 명과 함께 시카고 서북 정거 장에 나가 김창준 목사의 후임으로 온 한승곤 목사를 영접했다. 한 목사

년 2월 본 교회 이사부 부장 염광섭이 임시 담임 교역자로 선정되었다. 당 시는 담임 교역자를 목사라고 칭하기 도 했다. 그는 교인 중심의 교회를 만 들기 위하여 교인의 정식 입교식을 거행하였고, 행정부를 두고 그 안에 전도부, 예배 유사부, 교회 기사부, 엡 윗 리그부, 음악부 그리고 교인 모집 부를 두어 일반 교우들과 같이 모든 교역을 협동하기로 하였다.

1931년 현재, 유학생으로는 시카고 대학의 장세운, 최경식, 위해진, 길진 주, 김메리, 서북대학의 김명선, 김 훈, 이복원, 갈홍기, 정경옥, 황보익, 루이 스 대학의 양일태, 김태선, 김창순, 김 봉성, 김호철, 이웅영, 이종숙, 이재백, 박정우, 남궁탁, 노스팍 대학의 한세 광, 김옥문, 백낭봉, 맥코믹 장로교신 학교의 강택모, 이규용, 김인준, 문찬 규, 사범학교의 위웰렌, 미술학원의 박영직, 미션 체육 대학에 김근명, 넥 뷰의 임캐롤라인, 김헬렌, 전헬렌, 아 메리칸 음악대학의 윤기성 등이 있었 고, 재학하지 않은 학생으로 임기선 과 조봉환과 차의불렌 등이 있었다. 이들 모든 유학생은 본 교회 교인으 로 보면 될 것이다.

염광섭의 목회 기간 가장 뛰어난 업적은 예배당 마련이었다. 미국 북 감리교회가 옥데일 애비뉴 가옥을 14,000달러에 매입하고 이를 시카고 한인교회가 사용하였다. 광이 35척 장이 150척의 대지에 2층 붉은 벽돌 집인데 상층에 예배실, 침실 4간, 목 욕실 1간이 있고 하층에 사무실 1간, 침실 1간, 도서실 1간, 식당 1간, 주방 1간이 있었으며, 식당 뒤로 침실 3, 4 간을 더 들일만 한 공간이 있었다. 이

"...원래 교우가 소수인 중 과반이 학생이므로 재정 구비의 능력이 심히 잔핍하여 원근에 계신 일반 부모 형 제자매의 은혜로운 방조를 불가불 청 케 되었습니다. 잊지 마실 것은 전무 후무할 이것이 한 번이올시다. 우리 직원 일동의 열망도 생각하시려니와 우리 시카고 형제의 터를 잡아주시는 그 일에 한 분이 되시기로 유념하시 어 다소간 동정해 주심을 깊이 믿고 바라나이다.

1931년 4월 23일"

6월 14일 하오 2시에 엡웻 청년회 주최로 성대한 예배가 진행됐다. 회 장 강제순 여사의 사회 하에 일동이 찬송가를 부른 후 조윌람의 나팔 독 주, 방창덕의 독창, 위혜진의 설교, 김 베세와 라수사나의 듀엣, 일동의 찬 송, 염광섭의 지방학생 소개, 수전, 박 영애의 독창, 광고가 이어졌다. 폐회 후 부인들이 곱다랗게 말아온 냉면을 먹었다. 그달 22일 저녁 에반스톤에 있는 전태우의 집에 도상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져 전신주와 정면으로 충동하여 약 3주 간 치료의 중상이었는데 다행히 1주 일 만에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해 7월 교회 강당 수리에 착수하 여 번쩍한 흰 벽과 천장, 그리고 전에 없던 강대를 새로이 설계하여 교회당 의 외면을 일신하여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달에 새로 피 선된 이사로는 염광섭이 3년 임기로 선정되었고, 기타 3년조, 2년조, 1년 조로 구분하여 8명이 더 있었다. 그해 8월 본 교회 갈홍기 목사가 시카고한 인교회 담임목사로 피선되어 염광섭 의 목회는 6개월간이었다.

서울대학교 교수

염광섭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 카고대학 심리학과 도서실장으로 근 무하다가 1943년에 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1947년 2월에 그는 국무성의 알선으로 미군정 고문이 되어 미군 수송선으로 인천항에 도착했다. 그해 3월에 유억겸과 안동원이 영보 그릴 에서 그를 위한 환영회를 개최하였고, 두 달 뒤 그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 신분석과 교수가 되어 '멘탈테스트의 수학적 기초'라는 영어강좌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까지 강의했다. 그해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내 중학교 교장과 교사 50여 명을 상대로 입시 제도 개량 신방법 강습회가 매일 오 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울 문리 대 심리학 교실에서 열렸는데 강사는 염광섭이었다.

그 후 염광섭은 아내 트레바 글소 니클과 도미하였고, 1981년에 향년 86세로 시카고 인근에서 별세했다.

damien.sohn@gmail.com

시카고한인교회 임시담임으로 사역시 예배당 마련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직...1947년 서울대 교수로

하자 교회를 설립하려는 의논이 실천 되었다.

염광섭이 사전에 교섭한 후 7월 23 일에 그가 김 경, 강영소, 이태성과 함 께 락 리버 연회의 선교총회 회장이 자 게렛 신학교 교장이었던 호겔트 박사를 만났을 때 오는 주일부터 예 배를 시작하되 목사의 사례비는 선교 부가 책정하기로 하였다.

1924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서부 청년회 강당에서 교회 설립식이 있었 다. 그런데 본 교회는 락 리버 연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찬미 224장 을 부른 후 사회자였던 염광섭이 기 도했다. 그 후 강영소의 교회 설립취 지, 김예택의 주악, 연보, 차의석의 성 서낭독, 광성학교 교장 김득수의 설 교, 오한영의 솔로 그리고 하와이청 년회 총무 이태성의 축사에 이어 시 카고한인교회 설립을 공포했다. 이후 일동의 140장 찬미, 각 단체 대표자의 축사, 일동의 3장 찬미로 마쳤다. 예

는 감리교단의 파송 목사였다.

이듬해 이사회 이사의 한 명으로 염광섭이 선임되었다. 그런데 그해 3 월 30일에 그의 부인 문로라가 임신 중 독감에 아기와 함께 세상을 영별 했는데 신한민보의 보도대로 "염광섭 군의 고분지탄도 동정의 눈물을 흘리 지 않을 자 없었다."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

1930년 4월에 이화전문학교 교장 아펜젤러가 본 교회 예배시간에 조선 여자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한 다음 날 저녁에 만찬회에서 염광섭이 정한경 과 박로영, 김명선과 함께 감상담을 말했다. 그해 7월 시카고 대학에서 심 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염광섭을 위 한 박사 축하회가 본 교회에서 성대 하게 열렸다. 그해 9월에 2년 임기의 본 교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목회자 선정이 어려운 가운데 1931

새에덴교회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신길교회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주안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연로한 염광섭

로써 염광섭이 한인 유학생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한인교회는 그해 5월에 이 건물의 수리비 7백 달러를 미주 동포에게 헌 금해 줄 것을 이사부 부장 염광섭과 위원 7명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호 소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량구 망우본동 340-1(131-231)

수정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일예배3부: 오전 11:40 일저녁예배: 오후 7:30

2전 5:30/6:30/9:00

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오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0여배: 오후 9: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왕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3배배: 자연 2:00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시은소교회 승동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존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장위제일교회



=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克 12: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성문교회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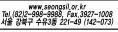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신촌교회

청주주님의교회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안암 제일교회

군포제일교회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성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 "리더십 코멘터리 (90)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목회리더십의 성경적 솔루션

목회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성경적 분석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독 단적 교회 행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하나님 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 복 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리더십의 개혁이다. 예수 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 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목회리더십의 위기를 경고한다.

①리더의 가치관이 혼돈되면 팔로워의 가치관도 함께 혼돈에 빠진다. "악을 선하 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 정치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망하는 길이

목회리더십은 인격적 리더십이다

존경받는 인격 없이 목회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목회는 관계요 감동이기 때문이 다. 목회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롤모델 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믿는 자들 중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에 있어서 증거가 보여야 한 다. 목회자는 말과 행동, 사랑, 믿음, 정절 (purity)에서 본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

른 목회자들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목회자와의 경쟁도 불필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나 되게 만드 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나에게 맡 겨주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모두 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되 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몇 달란트를 받았 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받은 은사대로 충 성되게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갈 길이다.

시대를 이끄는 목회리더십으로 성장하

학습과 배움이 인간에게 성장을 주듯이 목회자들은 리더십을 배우면서 영적인 성 장을 해나가야 한다. "천재는 99%의 노력 과 1%의 두뇌로 이루어진다"라는 에디슨 의 명언처럼 천성적으로 타고난 천재보다 는 성실한 노력가가 큰 결실을 맺는다. 사 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 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고 했다(딤전4:15). 여기서 '전심전력 (entirely)'이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Give yourself entirely to them). 리더십 을 계발하는데 완전히 헌신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목회자는 리더십을 계발해서 점진적으 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처럼 작년 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 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속

목회는 관계이며 감동, 존경받는 인격 없이 불가능 리더십 계발에 완전히 헌신, 점진적 성장 이뤄가야

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 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 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사5:20).

②사회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파멸 한다. 불의한 제도와 억압적인 법률, 가난 한 자 착취와 공의의 부재, 과부와 고아 착 취 등이 곧 사회상이 된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 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 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 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사10:1-3).

③영적리더가 타락하면 재앙이 생긴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해서 독주를 즐기 며 술에 취하여 올바른 영적인 이상을 제 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져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 유다 사람 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 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 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 이 없도다"(사28:7-8). 영적리더의 타락은

스도를 닮은 인격을 통해 존경을 받는다. 말 한마디라도 성령의 통제 하에 하는 지 속적 훈련이 필요하다. "더러는 말은 입에 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엡4:29)는 바울의 권면이나 "은혜로 소금 쳐 언제나 맛이 나 는 말"(골4:6) 등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 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난다.

목회리더십은 성경적 리더십이다

최근 뉴스에 보면 세속 리더의 인격보다 못한 성품을 가진 목회자들 이야기가 들린 다. 목회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리더십이라야 한다.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해서 목회자 리더십은 언제 나 성경이 주는 가르침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목회리더십은 목회자 자신의 고집과 독단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따라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성경의 사상과 교훈이 내면화된 리더십이라야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를 중심으로 쓰임을 받는다. 은사가 부족한 목회자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그들의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해서 그리 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섬김의 장 을 마련해주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다

사람이 날마다 성장해 영향력이 있는 리더 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생각의 구조나 내용이 철저하게 말씀과 일치해 나가야 한다. 지 속적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게 한다.

"오늘날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 에서 크게 하리라"(수3:7)는 말씀이 주는 교훈처럼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목회자 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 들 앞에서 크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이 다. 목회자는 리더로서 열정을 다해 헌신 해 나갈 때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팔로워들은 성장하고 있는 리더를 따라가 며 진정으로 주님의 품성을 닮고자 할 것 이다. 그 결과는 목회자 자신에게 영적인 축복이요 그 목회자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팔로워들에게도 큰 축복일 것이다. 지금은 목회자 리더십이 개혁되어 예수께 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으 로 회복되어야 할 때이다. 시대를 이끄는 목회자 리더십으로 성장해 나가라. "이것 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 원하리라"(딤전4:16).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럮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쉼의 시간

사람들은 속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밖의 추운 날씨가 돼서야 자기 입김을 통해 알아차린다. 이렇게 더운 요즘 엔 그 추운 날의 입김이 그립다.

성경공부들이 다 방학을 해 간만에 애틀랜타에 있는 친구를 보러 다녀왔다. 그런데 친구를 보러가는 기내 속 에서도 해야 할 일을 적고 다음 학기에 어떤 성경공부를 할까... 뭐 그 담에는 어떤 사역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범벅이 되어 쉬지 못하는 자 신을 본다. 그래.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이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끄집어내서 염려하는 마음을 십자 가에 못 박아 버리고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종노릇하며 사는 일들을 그만하자. 그리고 이젠 새롭게 태어난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사는 나로 돌아가자고 다짐해보며 비행기에 올랐다.

누군가가 보내준 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일 안하고 놀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진짜 영성의 사람이다'라 고.... 그렇다. 진정한 영성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 을 보고 대표기도를 인도하느라 열심히 기도하는 때도 나타나야 하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고 놀 때도 여 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다. 우리의 훈련이란 영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들 을 놔버리는 것이리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 이면 살리라고 하셨다. 감정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 하는 한 나는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놓일 수 없으리 라.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늘 문 제의 노예가 되어 살리라. 병에 붙들린 삶을 사는 한 나 는 결코 병에서 치유 받지 못하리라.

우린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가 손에 꼭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손을 쫙 펴서 놔버리 는 열쇠는 바로 내가 쥐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우린 영으로서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살 길이 열리리라. 극렬 히 타오르는 풀무불의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평안 했 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분명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 인 삶의 이그젬풀(example)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확 놔버리면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 내 인생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텐데 말이다. 그 창조 역사는 그야말로 이 우주만큼 무궁무진 하지 않을까. 오 늘, 내 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카톡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저장해둔 많은 이름들이 어쩌면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되지 않은 이름들이라 해도 그 분들이 모 두 모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창조 역 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령스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 들이 되길 기원해본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에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천 5:30(화-금) 오천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사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월 | 무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에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 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로요세 국가도됨: 고단 3: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영생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구글3구에메: 보연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포기 할 수 없는 꿈의 성취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행운아는 그 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 하면 꿈을 꾸기는 쉬워도 그 꿈을 이루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던 이들이 자기 의 꿈을 이루어 성취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포 기하고 자기를 방탕에 던지기 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원인을 자기 아닌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게 서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은 그 원인을 교회에서 찾으려 하고 목사에 게서 찾으려 하고 교인들에게 서 찾으려 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웃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심 지어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 도 포기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간 데마처럼 주님 의 품을 떠나기도 하는 모습을 목회 현장에서 보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절망하 고 너무 쉽게 조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자살을 하 기도 합니다.

성경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포 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 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be reap a harvest"(Gal6:9).

예수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쉬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 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 나님은 우리로 포기해선 안 될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 소중한 것을 지키고 이루어 성취하게 하시는 완성자이시 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주를 믿는 믿음의 이 길을

가다가, 혹은 주님이 주신 사 명자의 길을 가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을 만난 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 하다가 보면 결국 성공자가 되 고 꿈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주교계

저는 꿈을 꾸는 목회자입니 다. 나름대로의 목회의 비전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애를 쓰며 목회를 하는데 아직 도 제 꿈은 이루어지지를 않고 제가 꿈꾸는 그 꿈의 고지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땀 을 흘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애처로운 저의 모습 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만하 면 이민교회 목사로서 성공했 다"고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냥 목회 편히 하세요,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여 이루어질 꿈의 실 현은 없습니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제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을 포기 하지 않고 살아갑니 다. 그래서 제 스마트폰 카톡에 는 '포기 할 수 없는 꿈의 성취' 란 글을 새겨 두고 되새겨 보 곤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위대한 일입 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 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위대하고 아름다 운 일일 것입니다. 설령 그 꿈 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써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 지 리도 꿈의 성취를 포기하지 않 고 살아가는 모습은 훌륭한 모 습일 것입니다.

여러해 전에 그리스도인들 의 신앙간증서인 다이제스트 를 통하여 아주 감동적인 '메 기 폴'이란 여성도의 간증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녀가 목이 좋지 않음을 느껴 병원에 갔는 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후두암 말기입니다"라고 한 것 입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가 병원로비에 잠시 앉아 생각하 고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이 쟁 반에 찬 냉수 한 컵을 주더라

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냉수 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그 컵 아래 간호사가 남겨둔 메모 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 습니다. "Never give up and prayer" 곧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하세요" 란 메모를 보고 그 여인은 감 동을 받고 스스로 결심하고 건 강을 회복하는 꿈을 그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후두암 을 치료 받고 완쾌되어 병원 암동을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혹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 꿈 을 붙잡고 얍복 강가의 야곱처 럼 씨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 그러운 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 의 꿈을 성취 해주시는 축복 을 허락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 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 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모든 것 위에 복음"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 38차 정기총회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 제 38차 정기총회가 6월 10일 부터 13일까지 앨라배마 버밍 햄에서 "모든 것 위에 복음(고 전15:3-4)"이라는 주제로 열 렸다.

임원선거는 총회 마지막 날 진행된다. 총회장 후보로 현 1 부총회장인 이성권 목사(신시 내티 능력침례교회), 1부총회 장 후보로 김경도 목사(플라워 마운드교회)가 각각 후보로 단 독 출마했다.

첫날 10일 저녁에는 개회예 배와 함께 김용혁 목사가 설교 하는 저녁집회가 진행됐다. 주 강사 김용혁 목사는 대전 노은 교회 담임목사로 '아비 목회'로 유명한 목사다.

11일에는 Mark Clifton 박사 (북미선교회 NAMB 시니어 디 렉터)의 강의, 선택강의, SBC(남침례회) 총회 참가, 해외선 교부(IMB)와 국내선교부 행됐다.

마지막으로는 Paul Chitwood 박사(국제선교회 IMB 총재)의 강의가 진행됐다,

선택강의는 길영환 목사(콩 코드침례교회 은퇴) "목회여정 의 위기와 극복", 박인화 목사(뉴송교회) "하나님의 방법은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 38차 정기총회 개회예배에서 준비위원들이 찬양하고 있다.

사람이다", 최동갑 목사(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가 "도요다 식 목회", 송상호 선교사(IBM) 가 "IMB와 함께 할 수 있는 선 교의 기회", 조동선 교수(사우 스웨스턴침례신학교 조직신 학)가 "신앙고백서를 통한 침 례교회 신앙 연구:, 박레위 목 사(Journey of Failth Church) 가 "숨은 유스 사역자 찾기"라

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12일에는 정기총회가 진행 된다. 저녁에는 주강사 김용혁 목사가 인도하는 저녁집회와 김제이 목사의 인도로 청소년 축제가 진행된다.

한편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참가자의 편의를 위 해 2개 장소에서 열린다.

11일 새벽은 박종철 목사(기 독교대한국침례회 회장)과 엄 종오 목사(달라스침례신학대 학학장), 12일은 임광 목사(위 싱톤지구촌교회)와 최봉수 목 사(슈가로프침례교회)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총회가 끝나고 13일에는 총 회 목회부 주최로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가 인도하는 "QT 목회"세미나가 오전 10 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다.

〈정리: 유원정 기자〉



ITS 학위수여식 모습

ITS 2019 학위수여식...총12명 졸업

인터내셔널신학교(ITS 총장 이승현 박사) 제 37회 학위수여 식이 8일 오후 7시 아카디아 커 뮤니티교회(래리 밸린저 목사) 에서 열렸다.

프리쿠나 다마자 박사 사회

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데이빗 매킨리 박사가 기도했으며 중 국어학부 학생합창단이 특송을 불렀다.

이어 퀸린 리차드 리우 학우 가 성경봉독했으며 이승현 총 장이 설교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목회학박 사 2명, 신학석사 3명, 목회학 석사 4명, 신학연구석사 3명 등 총12명이 학위수여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짐 코너 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주최 로마서 세미나에서 백석대학교 전 총장 최갑종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야기 '로마서'

아주사퍼시픽대 세미나, 강사 최갑종 교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 퍼거슨 박사) 한인총동문회(회 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한 로마 서 세미나가 10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4시까지 본교 LA캠퍼 스(디렉터 도널드 브라운 박사) 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최갑종

교수(전 백석대 총장)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최 교수는 "성경에서 로마서 만큼 비중 있게 다룬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뤄졌다"며 "로마 서는 로마서 서문과 결론부분 처럼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 치고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주비전교회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현 1:30 주일한양예배: 오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현 8:30 금요기도함: 오현 8:30

내벽기도회: 오전 6:00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명어예배: 오후 1:00

금을 갖고 예루살렘교회로 올 라가기 직전 고린도교회 인근 에서 작성했다. 그리고 고린도 동쪽 겐그리아 교회에서 뵈뵈 를 통해 로마서를 보냈다"고 설 명했다.

최 교수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는 죄로 오염되 고 타락한 아담과 후손의 이야 기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 령 안에서 아담과 모든 후손들 을 위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 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로마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 의 구원의 스토리다. 그것은 인 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창 조세계 전 인류가 살고 있는 전 지구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소망 구속 사랑의 스토리"라고 설명했다.

뉴욕겟세마네교회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도 회: 오전 5:30 구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 오전 10:30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구글4구에데: 고구 2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박준호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국요철야: 오후 09:00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리빙스톤교회



지역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하와이 행복한교회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구글듯에데: 고근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담임목사: 조일구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푸글3푸에메: 포루 1: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담임목사: 최광언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하와이 및 북미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게시판

The Korean Christian Press

'화요찬양 모임' 시즌2 시작

뉴욕에서 부르는 '장년세대를 위한 정기 화요찬양 모임' 시즌2가 6월 18일 오후 7시30분부터 킹덤마이저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시즌에서는 "나를 살린 찬양"(So Great Salvation) 주제로 생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간 증처럼 찬양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자신을 살린 찬양의 간증을 쏟아낼 것이다. 이번 첫 게스트로 YP3 형제 (유진웅, 태웅, 현웅)가 오랜만에 만나 찬양의 열기를 더해 갈 것이다.

▲문의: (646)258-4161

아이티 8월팀 학생참가자 추가모집

더코너인터내셔널(대표 조항석 목사)이 아이티 8월팀 학 생참가자(고등학생, 대학생)를 추가 모집 한다. 추가모집 인 원은 4명으로 단기선교 기간은 8월 12일(월)부터 17일(토) 까지 5박6일, 장소는 아이티 포토프린스 인근 고아원이며 활동내용은 고아원 식량공급, 음악회, 아이들과 놀아주기, 수영 등이다. 첫 모임은 6월 23일(일) 오후 2시 훈련장소(40 Boad Ave., Palisades Park, NJ, iPrime Academy 3층 강의 실)에서 7월 7일(일)-8월 11일(일)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간단한 악기연습, 언어훈련, 크래프트 연습을 한 다. 참가비는 항공료 678달러+500달러=총 1,178달러.

▲문의: (201)446-4466 이메일 thecornerhaiti@gmail.com

뉴욕한인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예배

뉴욕한인제일교회 박효성 목사 은퇴찬하 및 송인규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6월 30일(주일) 오후 5시 동 교회당(500 S. Broadway Tarrytown)에서 열린다.

▲문의: (914)332-7640, 418-5925

제 5회 하랑예찬 어린이 찬양 집회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제 5회 하랑예찬 어린이 찬양 집회가 "One Way Jesus!"라는 주제로 6월 15 일(토) 오후 6시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대하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41회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총회장 엄기환 목사, 부총회장 김종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41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 외총회 제 41회 총회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 는 주제로 지난 6월 10일 저녁 5시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뉴욕노회를 탈 퇴한 강유남 목사 등이 5월 20 일 LA에서 41회 총회를 개최 함으로 사실상 총회 분열 양상 을 보여 비상총회로 진행됐다.

총회 개회예배 설교와 총회 사회를 맡은 증경총회장 엄기 환 목사는 "28년 전 280여 명이 모여 시작된 해외총회가 점점 약세가 되가니 가슴이 아프다" 며 "후배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길 바라며,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 가자"고 말했다.

엄 목사는 이날 "성숙한 청 지기"(벧전4:7-11)이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주님의 교회 를 섬기는 성숙한 청지기는 첫 째, '믿음이 비밀을 간직한 자' 로 모세나 바울같이 전도와 헌 신이 있어야 하며, 둘째 '하나 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보 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 는 것이며, 셋째 '봉사하는 자' 로 봉사의 기쁨이 크며, 넷째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 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 려워하여 맡은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라"고 강조했다.

개회예배는 뉴욕노회장 김 종태 목사 인도로 기도 윤성태 목사, 성경봉독 한상흠 목사, 설교 엄기환 목사, 환영사 김종 태 목사, 축도 정익수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총회준비위원장 김종태 목사 는 "각처에서 오신 회원 여러 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 은혜가 충만한 성 총회가 되도 록" 협력을 당부하고 "격의 없 는 대화와 친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김종태 목사 집례로 성찬예 식이 있은 후 회무처리에 들어 가 임원을 선출했다.

엄기환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익수 목사는 "총회 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지 고 수고해주시는 엄기환 목사 님을 총회장에 추천한다"며 부 총회장에는 김종태 목사를 추 천했다. 5분간 정회 후 정부총 회장이 나머지 임원들을 발표 했다.

△총회장 엄기환 목사 △부 총회장 김종태 목사 △서기 한 상흠 목사 △부서기 이종수 목 사 △회록서기 이민철 목사 △ 부회록서기 이인보 목사(LA) △회계 권영길 목사 △부회계 이용복 목사 △총무 정대영 목

이어 순서를 줄여 공천부 중 가장 시급한 고시부 부장 윤성 태 목사와 서기 한상흠 목사를 선임했다.

또한 참석회원들이 인사하 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강도사 합격자 이준 희, 안국찬, 황동수 강도사와 지교찬 목사, 필라에서 하경빈 이사장과 장석기 목사가 참석 했으며 김영혜 신입이사 등이 인사했다.

〈유원정 기자〉

"차세대와 함께 한인교회 미래 감당"

2019 호산나전도대회, 강사 이승종 목사

2019 호산나전도대회가 지 난 6월 7일부터 사흘간 한소망 교회에서 열렸다.

뉴저지교협의 연례행사인 이 전도대회는 올해 "일어나라 빛 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이승종 목사(KWMC 사무총장, 어깨동 무사역원 대표)가 강사로 초청

교협회장 홍인석 목사는 " 차세대와 함께 한인교회의 미 래를 함께 감당하는 꿈을 꿔본 다"며 "호산나전도대회는 생명 의 말씀과 때를 따라 예비하시 는 성령님의 은혜로 지역 교회 가 함께 힘을 얻고 부족한 자들 을 세우고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집회"라고 말하 고 "이민교회 역사를 통해 힘써 왔던 일들을 더욱 구체화 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을 이루는 뉴저지 한인교회들 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첫날 이승종 목사는 "예수 그 리스도의 회복"(눅2:41-50)이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린 예 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 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 회나 이민교회가 가장 중요하 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문"이라며 "예수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겠는가? 예수 없는 인 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 을 예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 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며 도



2019 호산나전도대회에서 강사 이승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전했다.

이 목사는 "어떤 변화가 있어 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없 다"며 "첫째, 인생이 사각지대 (?)를 잘 살피라. 삶의 경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 둘째, 착각하는 믿음(?)을 갖지 말라. 작아도 생명성이 있어야 한다. 이민교회는 선교지다. 2 세가 선교 대상이다. 셋째,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는 자 는 best one이 아니고 only one 을 찾는다. 부르실 때까지 하나 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기 바란 다"고 말했다.

이승종 목사는 둘째 날은 "믿 음의 시각 회복"(창13:14-18), 셋째 날은 "믿음의 능력 회복"(삼상17:45-50)이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전했다.

또 대회를 마치고 10일 오전 에는 "차세대 양육과 통일선

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 도했다. 첫날은 윤명호 목사 인 도로 개회선언 홍인석 목사, 경 배와찬양 화요찬양팀, 기도 윤 석래 장로, 찬양 필그림선교교 회 성가대, 말씀 이승종 목사, 봉헌기도 김대호 목사, 봉헌찬 양 뉴저지장로성가단 광고, 박 인갑 목사, 합심기도 장병근 목 사, 축도 양춘길 목사 순서로 진 행됐다.

둘째 날은 강남수 목사 인도 로 경배와찬양 러브NJ, 기도 이 문홍 장로, 찬양 한소망교회 성

가대, 성경봉독 육귀철 장로, 말 씀 이승종 목사, 봉헌기도 권광 희 목사, 봉헌찬양 이하연 사모, 광고 박인갑 모사, 합심기도 송 호민 목사, 축도 이의철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셋째 날은 장동신 목사 인도 로 경배와찬양 북미주원주민단 기선교 찬양팀, 기도 오범준 목 사, 성경봉독 김동권 목사, 찬양 뉴저지초대교회 성가대, 말씀 이승종 목사, 봉헌기도 백형두 목사, 봉헌찬양 뉴저지남성목 사합창단, 광고 박인갑 모사, 합 심기도 육민호 목사, 축도 이병 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성인대회와 같은 시간 과 장소에서 열린 어린이 호 산나대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주제로 미니 VBS로 진 행됐다. 11주년을 맞이한 CSO 가 주관한 어린이대회는 유치 부와 유년부로 나눠 조한나강 전도사(언덕위의교회)와 김유 니스 전도사(뉴저지은혜와사 랑교회)가 30여명의 스탭과 진 행했다.

또한 차세대 사역을 강조한 32회기에 걸맞게 5년여 만에 다시 시작하는 호산나청소년 대회는 6월 28일과 29일에 열

〈유원정 기자〉



6월 13일 WHF 후원의 밤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사진들. 왼쪽부터 김진화 사무총장, 송병기 고문, 길명순 이사장, 함영혜 이사, 도인순 이사, 이강춘 이사.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6월 13일 월드허그파운데이션 후원의 밤

월드러그파운데이션(World Hug Foundation, 이하 WHF) 이 6월 13일(목) 대동연회장에 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오후 6시30분 칵테일 리셉션이 있으 며 7시30분부터 디너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길명순 이사장과 국제고문 송병기 목사, 사무총장 김진화 목사와 이사들은 7일 오후 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후원의 밤 안 내와 그간의 사역들을 보고했 다.

길 이사장은 "먼저, 기쁜 소 식은 지난 4월 3일 입양 52년 만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조이 알레시가 최근 휴스턴 상원의 원 사무실에 취업이 돼 현재 워 싱턴DC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 이사장은 "그러나 앞으로 한인 2만 명과 타민족 등 총 3 만5천 여명이 모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 말하고 "2018년 8회의 캠페 인을 했는데 무산됐지만 지난 5월 다시 입안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에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제 3회 후원의 밤에는 뉴욕 주류사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했다.

뉴욕주와 뉴욕시 근무자나 근무경험자들과 법률 팀들로 하여금 WHF 사역을 적극 돕 게 하기 위해서다. 회장도 안토 니오 라글랏 주니어를 위촉했 다. 법률팀은 우선 인도, 에티 오피아, 베트남 3국이 함께 움 직인다.

지난 5월 상정한 법안이 통 과되면 입양아라는 것만 증명 되면 무조건 시민권을 받게 돼 있다.

이번 후원의 밤 입장료는 일 인당 100달러. 후원의 밤이나 WHF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718)254-2992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어려운 이웃에 위로와 용기를... 뉴욕장로성가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김재관 애실 등이 찬조출연 했다. 장로) 제 15회 정기연주회가 퀸 즈한인교회에서 400여 명의 관

객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창단 제 23주년을 맞은 뉴욕 장로성가단 단장 김재관 장로 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위로와 용 기를 주는 마음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주회는 단목 김바나바 목 사 개회기도로 시작해 이다니 엘 지휘 조윤희 반주로 합창 " 복있는 사람은" 등 9곡을 연주 했으며 부인합창단과 연합합 창 및 아이노스중창단의 순서 도 있었다.

또 뉴욕사모합창단, 바이올 린 유안나, 뉴욕필그림선교무 용단, 밀알앙상블, 소프라노 조

이날 뉴욕장로성가단 준비위 원장 장세활 장로 사회로 후원 이사회 이사장 박용기 장로가 후원금 1만 달러를 단장 김재 관 장로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헌금기도는 대외부단장 정권 식 장로, 광고 총무 송윤섭 장 로, 축도는 뉴욕교협회장 정순 원 목사가 했으며 김경열 목사 의 만찬기도 후 준비한 만찬을 즐기며 교제의 시간을 나눴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신규단원 을 모집하고 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퀸즈한인 교회에서 한다.

▲연락처: (917)763-0999.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뉴저지교협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증경회장→전회장, 회비납부 의무화 등

뉴저지교협 임시총회 열고 회칙개정안 통과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 사) 회칙개정특별위원회(위원 장 이의철 목사)는 6월 10일 오 후 1시 한소망교회에서 임시 총 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통과된 개정안 중 특이한 점 은 증경회장을 전회장으로 개 정했다. 나머지 안은 다음과 같

△회원자격 중 교역자 1인을 담임교역자 1인으로, 가입절차 중 교단 대표의 서면추천과 임 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삽 입했다. 회원 징계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또 회비납부의 의무 가 있으며 당해년도 회비 납부 자에 한해 결의권, 선거권, 피선 거권을 가진다.

△감사 2명은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으로 한다. 사모분과 는 삭제했다.

△또 11조 특별위원회 내에 회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공천위원회는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증경회 장들로 구성하며, 정부회장 후 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선출해 총회에 상정한다.

△제 16조 (선거)에서 회장, 부회장은 3차 투표에서는 (공

천위 추천) 출석회원 과반수 득 표로 선출하며, 회장 선출이 안 됐을 경우 현 회장이 임시회장 으로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부회장 미 선출시 회 장 취임식 3개월 이내 임시총회 에서 선출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

6월 28일 오전10시로 변경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2차 임실행 위원회 날짜가 6월 28일(금) 로 변경됐다. 시간도 오전 10 시로 30분 빨라졌으며 장소는 가나안입성교회(김여호수아 목사)로 동일하다.

자세한 문의는 (917)992-5200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 야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20년간 예배 거른 적 없다"…창립20주년

샬롬장애인선교회, 장애인 가족초청 야유회도 가져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 모세 목사)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가 6일 오후 6시 성황리에 열렸다. 박모세 목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 이 없다. 샬롬장애인선교회는 예배중심의 선교회다. 창립 20 주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음 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모세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본 선교회 이사인 김인용 장로가 기도했으며 소 프라노 이영주 사모(새생명비 전교회)가 특송을, 이사장 류 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가 '겨자씨에게 꿈이 있었습니 다'(마13:31-32)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류 목사는 "하나님께서 샬롬 을 겨자씨로 심었더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기대고 같이 있고 싶다는 하나님의 나

무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며 마음의 진심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쓰임받길 바란 다"고 말했다.

감사패 증정시간에는 1999 년 본 선교회가 출범할 때부터 함께했던 신명하 집사, 신재남 권사, 양춘모 형제, 조수아한 형제와 선교회 이사인 최동철 장로, 김영민 장로, 스티브황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케이크 절단식을 가진 후 강상희 목사(남가주농아인 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선교회는 8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위티어 네로우 리크리에이션 에어리 어에서 18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제20회 장애인 가족초청 야유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보치엘레스티 성인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믿음의 울림, 영혼의 거룩한 흔들림 기대"

보치엘레스티 연주회 '사랑의 콘서트'성료

보치엘레스티(뮤직디렉터 글로리아안) 연주회가 '사랑의 콘서트'라는 주제로 8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보치엘레스 티 앙상블이 '찬양의 팜파레',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고 독', '보리밭' 등을 불렀으며 보 치엘레스티 어린이합창단이 'Agnus Dei', 'I see the Light', 'Born Agsin', 보치엘레스티 성 인합창단이 '못잊어', '동심초',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를 불렀다.

또한 테너 오위영과 양두석

이 '오솔레미오'를 듀엣으로 불 러 청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콘서트는 전출연자가 함께 '축복하노라'를 앵콜곡으 로 부른뒤 마쳤다.

신영각 윌셔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는 "보치엘레스티의 공연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한 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믿음 의 울림, 영혼의 거룩한 흔들 림을 기대하며 순서 순서마다 깊은 감동이 끼쳐지고 하나님 께서 큰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 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준호 기자〉

시리아 난민 돕기 기금마련

미주여성코랄 28주년 정기연주회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권사) 28주년 정기 연주회가 8 일 오후 6시 바이올라대학교(총장 배리코리 박사) 크로웰 랜 싱 리사이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여성코랄 서정원 총무는 "21년 전 1991년 기도로 준비 하며 시작된 미주여성코랄은 현재 음악전공자들과 함께 동 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 운 도구로 사용되고자 헌신하 고 있다"며 "특별히 이번 연주 회는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에 작은 힘이라도 되

기 위해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소식

정세광 목사(캘리포니아 예 술대학교 총장)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새로운 영을 창조하 소서', '주께 찬양' 등 성가곡과, '도라지꽃', '내 맘에 강물'등 가 곡, 그리고 '꽃밭에서' 등 대중 가요를 불렀다.

또한 오렌지키션콰이어(지휘 장진영)과 테너 전승철, 그리고 소프라노 젠리가 찬조 출연해 이날 정기연주회를 빛내주었

〈박준호 기자〉



미주여성코랄 28주년 정기연주회에서 미주여성코랄 단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하고 있다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6월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김해룡 6.25참전용사 회장에 표창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6월 모임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 회(회장 김회창 목사)는 6월 모임을 8일 오전 11시 LA말씀

김회창 회장 사회로 8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이기홍 목사(미주군선교 연합 회장)가 위문사를 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진리사수 조국사 수를 담은 기념혁대를 선물로 전달했다.

또 김해룡 6.25 참전용사회 장에게 김회창 회장이 지도력 감사 표창을 했다.

이어 김해룡 회장이 회고사 를 했으며 김택규 목사가 격려 사를 했다.

2부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과 호국선열에 대해 묵념의 시간

이날 1부 예배는 최청학 부 회장 사회로 육군동지회장 최 만규 서기가 기도하고, 남가주 교협중창단과 글로리아합창단

이어 한기형 목사(남가주교 회장)가 축도했다.

〈기사제공: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서부교계 게시판

대학진학 세미나

새소망장로교회(박장순 목사 700 S. Rosemead Blvd)는 아케 디아 엘리트학원 주관으로 15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대 학진학 세미나를 교회 친교실에서 갖는다.

▲문의: (626)577-0191

부모교육 세미나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는 부모교육 코칭 세미나를 15일(토)과 16일(주일) 양일간 갖는다. 세미나의 강사는 한국 Active Parenting 본부장.

▲문의: (619)599-3167

임현수 목사 초청집회

샌디에고한빛교회(정수일 목사)는 임현수 목사 초청 집회를 20일(목)부터 23일(주)까지 개최한다.

▲문의: (858)874-2412

조영석 목사 찬양집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는 찬양사역자 조영 석 목사 찬양집회를 '새날의 소망을 노래하고 복음의 렌즈로 바 라본 세상을 이야기하는 콘서트'라는 주제로 14일(금) 오후 7시 30분에 갖는다. 이번 찬양집회는 조영석 목사의 두 번째 찬양앨 범 '새날'에 수록된 찬양곡을 발표하게 된다.

▲문의: (714)891-2029

타코마제일침례교회 VBS

타코마제일침례교회(최성은 목사) VBS가 25일(화)부터 29 일(토)까지 2015년 12월생부터 6학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갖 는다.

▲문의: (253)535-5803

반주자 모집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는 주일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 집한다. 기독교 신앙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우대 하며 약간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문의: (213)700-3159



LA영플레이어스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LA영플레이어스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LA영플레이어스 소년소녀 합창단(지휘 조지현) 제 4회 정 기연주회가 8일 오후 5시 미주 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 렸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글로리 아' '크레도' 등 미사곡, '도라지

남가주든든한교회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빛과 소금의 교회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꽃', '꽃구름 속에' 등 가곡을 불 렀으며 핸드벨 앙상블 연주가 있었다.

또한 소프라노 신선미, 바리 톤 장상근이 특별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제일교회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미주양곡교회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세계소망교회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코너스톤 교회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 2부예반: 오전11: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30 주일 2부예배 : 오후 1:3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무예배: 오선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8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 2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첫년예배: 오후 2:00 덕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내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주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 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새벽기도: 오전 5:30(화~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새로운교회에서 가졌다.

을 가졌다.

이 특송 했다.

협회장)가 '흥하는 다윗의 집'(삼하 3:1)이라는 제목으로 설 교하고 최학량 목사(미주군목

나침반교회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미주평안교회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열매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3부예대: 오후 15:30 말씀목성열-귀: 오전 5:30 토요세벽면함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담임목사 : 임승진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담임목사: 김요섭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현여택형센예배: 오존 2:00 금요찬당예배: 오후 7:30 새박기도화: 오전 5:30(월-라), 오전6:00(됨)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사랑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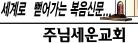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드)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F일2부예배: 오전 9:45(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2:00(청년) 구글3구에데: 고구 2:00(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전광훈 목사 정치발언에 "도 넘었다"

'문대통령 하야' 주장 이어 히틀러 비유 성명서 파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이 현 정부 를 거칠게 공격하는 정치적 발 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 교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대표회장은 8일 한기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한 '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의 국가적 탄압에 대한 성명 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 스로 물러날 때까지 청와대 앞 에서 단식기도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히틀러의 폭거 에 저항하며 독일과 유럽의 평 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본회 퍼와 같은 심정"이라며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생명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 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 민에게 북한 주체사상을 강요 하는 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하야하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지 3일 만이다.

교계 원로들은 "기독교의 본 질적 사명은 구원과 선교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 다. 제12대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충신교회 원로) 목사는 "교회가 정권과 세상의 타락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이 끌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라면서도 "그 러나 그 목소리가 편향적이거 나 누군가를 겨냥하게 되면 순 수성이 결여되고 힘을 잃는다" 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인 스 스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바 른 국가관을 보여줄 때 사회로 부터 위상이 재정립되고 교회 의 집합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인웅(덕수교회 원로) 목사 는 "아무 능력도,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해 일하는 것처럼 대중을 속이고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 문에 기독교 전체를 욕 먹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자기 역 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군 소교단과 이단이 뒤범벅된 상 태인 한기총은 없어져야 한다" 고 꼬집었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 입하는 행위는 정부와 정치단 체가 정의 인권 평화의 범주에

서 어긋난 행동을 보일 때로 국한해야 한다"며 "정치에 참 여할 때는 그 방법과 표현에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춰야 선 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 내부에서도 전 대표 회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 판과 우려가 나온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고 한국교회 를 분열시키는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기총 관계자는 "최근 전 대표회장이 발표한 시국선 언문은 한기총 전체가 아니라 전 대표회장의 사견이 담긴 문 서"라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 판했다.

교계에선 이번 논란을 계기 로 한기총의 대표성에 대한 오 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한 기총은 2011년 초 광범위한 금권선거 실태가 드러나면서 범기독교적 해체운동이 벌어 져 한국교회 연합기구로서의 대표성을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도 7일 성 명을 발표하고 한기총의 해체 를 요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 대는 "한기총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극우 적 발언이 한국교회를 대표하 는 것으로 호도하는 일에 사회 와 언론이 미혹돼지 말아야 한 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기총에 회원으로 등 록된 교단은 총 79개다. 이 중 '행정 보류' '회원권 제한' 상태 인 교단 10개를 제외하면 실질 적인 회원 교단은 69개다. 회 원 교단 각각의 규모도 크지 않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개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한기총 회원 교단 중 20여곳은 소속교회가 200곳 미만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 동·백석대신, 기독교대한감리 회 등 주요 교단은 한기총을 탈퇴했거나 행정 보류한 상태

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 고 있지만, 기침은 거의 활동 을 하지 않고 있다.

한기총 회원 교단 중 최대인

기하성 관계자는 9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 하다"며 "11일 열리는 임원회 와 실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와 평화수호 의지 굳건히 다져야"

한교연, 64주년 현충일 기념 논평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 태진 목사)이 6일 현충일 64주 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용서와 화해,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전 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논평에 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 해 무수한 국민이 피를 흘렸고 아직도 그 비극이 진행 중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 다.

이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를 위한 의지와 그 어떤 노력도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적 참극에 대해 우리 모두 가 겸허하게 다시 허리띠를 동 이고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굳 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일의 의미를 재정립하 자는 권면도 나왔다. 권 대표 회장은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 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다" 며 "현충일이 용서하고 화해하 되 결코 잊어선 안 되는 날이 자 온 국민이 확고한 안보의식 과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유와 평화수호 의지를 굳건히 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선교포럼' 효과적 선교방안 모색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외 국인 유학생 선교포럼'이 지난 3일 부산 삼일교회에서 개최 됐다.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소장 이병수 고신대 교수) 및 교회 개척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학술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 총) 서기 박경만 목사의 사회 로 진행된 예배는 이성만 장로 의 기도, 신성현 목사의 '행복 은 선택입니다' 제목의 설교, 권창근(삼일교회) 목사의 환영 사, 안민 고신대 총장의 축사, 부기총 대표회장 서창수 목사 의 격려사, 다문화선교위원회 서기 박은득 목사의 축도 등으 로 진행됐다.

학술포럼은 '다문화 사회에 서 이주자 선교'(김성운 고려

신대원 교수) '시티센터교회 개척을 통한 도시 및 이주민선 교'(신치헌 시티센터교회 목 사), '경기대 베트남 유학생 사 역 소개'(장예진, 고신대학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칼럼과 주 제발표 등을 통해 "유학생들은 근로자들보다 복음의 수용성 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들 이 복음을 받고 신실한 그리스 도인이 돼 자국으로 돌아간다 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수 소장은 "지난 해 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여명으로 내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 기회를 한국교회에 널 리 알려 외국인 유학생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 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

이단들이 장악한 팟캐스트계에 새바람 신학생들 톡톡 튀는 '콘텐츠'로 도전장

고종일(장로회신학대 교회 음악과 4년)씨는 팟캐스트에 서 아버지 고형진(강남동산 교회) 목사와 함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해 설했다. 방송 시간은 11분32 초. 이들 부자는 '샤론'의 뜻 을 함께 찾아보고 작곡가 CH 가브리엘이 작곡한 다른 찬 송가를 조사했다. 가브리엘 은 '그 어린 주 예수'(108장)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455장) '저 높은 곳을 향 하여'(491장) 등 유명 찬송가 의 작곡가다.

같은 대학 최정원(교회음 악과 2년)씨도 팟캐스트에

하는 것을 뜻한다. 애플의 아 이팟(iPod)과 방송 (broadcasting)을 합성한 신 조어다. 기존 라디오 프로그 램과 달리 방송시간에 맞춰 들을 필요가 없으며, 구독 등 록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업 데이트된다. 관심 프로그램 을 내려받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

한국내 대형 팟캐스트 채 널은 1만2000개의 방송을 보 유한 '팟빵'인데 여기서 종교 카테고리는 이단들의 놀이터 가 되고 있다. 신천지의 '하 늘팟'(2위), 중국계 이단인 지 방교회의 '한국복음서원'(3

까지 배웠다.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학생들은 아직 미숙 하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 를 내놨다.

마지막 수업이 진행된 4일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팟 캐스트를 선보였다. 이들의 작품은 팟빵 '장신대 콘텐츠' 를 통해 공개됐다. 목회자 아 버지와 함께하는 찬송가 해 설부터 신앙서적 읽어주기, 성경 이야기로 만든 콩트 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가 생 산됐다.

'리드 클럽'이란 채널은 이 은총(신학과 3년)씨의 손을 거쳤다.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귀찮은 이들'을 대상 으로 한 방송이다. 책을 대신 읽어 주는 게 콘셉트다. 이씨 는 헨리 드러몬드의 '사랑,

장신대 '콘텐츠 이론' 수강생들 '찬송가 해설' '성경 이야기 콩트' 등 제작해 공개

도전했다. 채널 이름은 '성경 스웨그(SWAG)'. 스웨그는 힙합에서 나온 말로 대중문 화에선 자유로움을 뜻한다. 성경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소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첫 에피소드는 다윗과 골리 앗 이야기. 최씨는 방송에서 친구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다윗과 골리앗을 연기했다.

팟캐스트는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 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 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

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회의 '천수답의 새벽묵상'(4

위)이 상위권이다. 조수진 장로회신학대 외래 교수와 그의 수업을 듣는 학 생 20명이 이단이 판을 치는 팟캐스트 채널에 복음 메시 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조 교수는 이번 학기 '콘텐츠 기 획 및 제작'이라는 강좌를 개 설했다. 고씨와 최씨 등 학생 들은 한 학기 동안 콘텐츠 제 작 이론을 비롯해 방송 기획 과 녹음, 편집 등 실무 기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을 소 개했다.

조 교수는 5일 "젊은이들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그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알 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면 서 "첫 출발이라 부족한 게 많지만 이런 노력이 지속돼 야 이단들의 공세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화하 는 시대엔 새로운 전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홈페이지에 두 번째 사과 '꼰대' 발언 분당 우리교회 목사

동성애 비판 성도들을 꼰대로 표현하고 대세가 이미 동성애 진영으로 넘어갔다고 표현했던 분당 우리교회 목회자가 다시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교회 J부목사는 8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설교 중 '대세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은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 습니다'라는 말로 많은 분들에 게 상처를 드린 것은 변명의 여 지없이 제 부족함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충격, 젊은 사람들의 참 담한 반응들을 보면서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 많은 분께 아픔을 드렸다"면서 " 진심으로 전혀 그럴 의도가 없 었다"고 사과했다.

J목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동 성애라는 죄의 큰 물결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분들에게 저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하 다"고 밝혔다.

J목사는 사과문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회 지도에 따르겠다고 했다. 교회는 사과문을 공지로 분류해 홈페이 지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찬수 담임목사는 이날 사과 문에 댓글을 달고 "J목사가 지혜 롭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



김토마스 목사 (서울 CCM교회 담임)



말이란 무엇인가?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합니다. 즉 말은 의사소통 기능 그 이상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사람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서양철학, 특히 플라톤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철학들은 영적이요 감각 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동양 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유식불교에 팔식이 있는데 눈, 귀, 코, 혀, 촉감, 뜻의 식, 자의식, 무의식 이렇게 8가지 감각의식을 단계적으로 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무의식의 세계에까지 들어가기 위해 도를 닦는 것입니다. 감각에도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본

그런데 데카르트(근대철학의 아버지)와 그 뒤에 나오는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나 들뢰즈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음성 이나 소리의 세계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중심의 서양철학에서 음성중심의 새로운 철학을 펼치 게 됩니다.

그들은 소리자체가 혁명적인 힘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됩 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오염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였 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에덴동산에서 사용하던 음성이 오 염이 되어서 그러한 파워가 소멸되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대화를 하 였는데 어떤 말로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언어는 하나님 의 형상의 능력을 지닌 완벽한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저주를 받고 우리의 음성마저도 오염이

말은 존재의 집, 의사소통 넘어 속사람 변화까지 기독교인은 말과 음성도 에덴의 언어로 회복돼야 평안한 내면상태와 발성테크닉이 좋은 음성 만들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보 다 더럽고 추악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사 람들은 그들의 말과 음성도 에덴의 언어로 회복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말은 존재의 집이라는 뜻이 우 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우리의 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얘 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가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모국어로 사용하 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들이 각기 다른 음성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들이 가져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자신의 메시지와 감정을 잘 표현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주요 언어들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라틴계열이 나 중국어보다 목이 금방 피곤해지고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한글이 발음이나 표기는 과학적인 언어인데 음성학적인 문 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발음 비슷하게 발음이 되었는데 일제강점 기 1930년에 한글학회에서 주시경 선생이 발음을 완전히 일 본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더욱 더 목에 무리가 가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0년에 평양노회록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쥬기철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주와 쥬는 발음이 완전히 다 릅니다. 주는 뒤로 먹으면서 목을 피곤하게 하는 발음이고 쥬는 호흡이 연결되어 목에 건강한 발음입니다. 이렇게 발음 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한국말은 세계적인 언 어의 기준에 미달되는 말이 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듣기만 해도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자기 소리에 흥분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들의 감성이 바뀌고 국민성도 바뀐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갈고 닦을 때 온화한 언행이 나오지만 좋은 테크닉에 의해 만들어진 음성은 음성자체로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화하고 평안한 내면의 상태가 기분 좋은 음성을 만들고 또한 자기의 발성기관을 잘 사용하는 테크닉이 기분 좋은 음성을 만들어서 감정과 테크닉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 하여 우리의 음성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사과했다"면서 "본인이 절대 그 고 당부했다. 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양 해를 구하고 있다. 넓은 마음으

러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문서 선교

하나님은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 한다"라는 작품을 편집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로라에 있는 새문교회를 방문하라는 음성을 주셨다. 새문교회 는 매달 변화프로젝트에 기부금을 보 내고 문서선교를 돕는 한국 이민교회 이다. 영문도 모른 채 그 교회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1만부 주문하려고 했던 "최고의 성 인들은 용서한다"라는 책을 2만부 주 문하라는 것이었다. 1만부를 주문하 는데 5천불이 필요하지만 2만부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8천불이 필요하 다.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3천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권인숙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예배시간 중에 알리라 고 하셨다.

다음 날 새문교회는 3,160불을 변 화프로젝트의 선교헌금으로 보내왔 다. 그들의 넉넉한 후원으로 1만부를 더 주문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교회의 한 교인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3천불 을 기부했다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 을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루신 기적이다.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관심 을 갖게 되면서 내가 받은 복은 참으 로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 나의 비전은 일반인들까지 "최고의 성인들"을 읽을 수 있게 해서 더 많 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영적인 성장 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단지 목사님들을 통해 책들과 DVD들을 배포하는 수준이었

그래서 "최고의 성인들"을 읽기 원 하거나 다른 재소자 가족들에게 보내 기를 원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 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그 판매로 들어온 모든 수익금은 변화 프로젝트에서 더 욱 많은 책들과 DVD를 형무소와 노 숙자 쉼터에 보내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사람들

재소자들의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 중 한 명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직원 이었다. 그녀가 목사 사무실로 찾아 왔다. "목사님, "최고의 성인들" 책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 요. 교회에 안 다닌 지 7년이나 되었 는데…이제 다시 나가보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었다. 재소자들의 간증 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나는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 뒤편에 실려 있는 예수님 영접기도를 그녀와 함께 했다. 기도를 마친 후 감 사의 뜻을 전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성령님께

서 그 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 을 열고 삶을 인도하는 것을 직접 눈 으로 보게 하신 것이다.

그 후 내 상사인 미스터 푸러도 "최 고의 성인들" 책을 아담스카운티 경 찰서장과 고관들에게 보냈고 책을 읽 은 모든 사람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 았다. 다른 주에서도 재소자들과 교 도소 목회자들의 소감을 전해왔다. 그 중 잭슨 조지아 교도소에서 온 편 지를 소개한다.

"이렇게 은혜 넘치는 책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인들' 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보는 눈 이 달라졌어요. 나의 마음을 열고 이 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다면 20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 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상상도 못한 반응들에 힘입어 한편 만 발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되어 계속 시리즈로 출판하게 되었다. 하 와이의 어떤 재소자는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며 한 달에 10불씩 선 교헌금을 보내왔다.

콜로라도 프레블로 교도소에서도 편지가 왔는데 하나님이라면 듣기 싫 어하고, 항상 화를 내며, 또 성경이라 면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하루는 읽을 책이 있느냐고 물어와서 "최고 의 성인들은 용서한다"라는 책을 주 었더니 이틀이 지난 후 그가 다시 찾 아왔다고 했다. 그 책을 읽고 예수님

7장부터는 2차 포로귀환의 역사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귀환

의 중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

었다면, 2차 포로귀환의 중심에는 에

스라가 있습니다. 1차 포로가 귀환한

지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

라는 2차 포로귀환단을 데리고 유다

사는 마칩니다.

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제부터는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늘 분노에 가 득 차 있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보였 다며 책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해 왔 다.

미연합감리교 목회 수련회에서 만 난 조지아의 목사님은 재소자들이 "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통해 많 은 은혜를 받았다며 앞으로 박스로 보내지 말고 트럭으로 보내주면 좋겠 다고 요청해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4트럭 분량을 보내드리고 있다. "구 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 씀대로 목사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게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

한 수련회에서 예배시간에 설교하 면서 문서선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배 후 한 목사님이 나의 책을 스페 인어로 번역해주겠다고 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다. 그분 덕분에 스페인 어로 된 내 책을 읽은 멕시칸 재소자 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매주 미 전역에서 들려오 는 재소자들의 간증은 한결 같다. 문 서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 람들은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더 많은 책들을 보 내달라고 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드라마 구약 (11)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대기의 내 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징계를 받으 며, 망한 것처럼 보였던 남방 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역사 서가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쓰는 '창출민 수삿삼왕' 역사인 것이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 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 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 로 70년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 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들이 집으 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 즉 '고레 스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역대기는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칙 령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에 기록된 포로귀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가 끝나면 성경의 목록은 에 스라로 넘어갑니다. 3번에 걸쳐서 포 로로 잡혀갔던 남방 유다 사람들이 3 차에 걸친 포로귀환을 통해서 돌아 옵니다.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로귀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에 스라1:1-3은 역대하 끝 36:22-23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의 내용으로 시 작합니다.

2장에서는 1차 포로귀환단이 돌아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 를 리더로 하여 49,897명이 돌아옵니 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이 때는 BC 538 년경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처음으 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먼저 제사를 지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는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같은 사람들 이 방해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지으 라고 했는지를 추궁합니다. 그러자

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그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칙령부터 시작해 1, 2차 포로귀환 역사 기록 역사서 통해 '뿌리 찾기' 정체성 교육과 사회개혁운동 병행

으며 성전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

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돌

아온 지 2년 후 BC 536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할 때 사 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고 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 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 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들은 본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인 데… 그들은 BC 721년 앗수르 살만 에셀에게 멸망당한 후에 앗수르 사 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렇게 태어난 혼혈인을 "사마리아인" 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유다 사람들 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 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 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입니 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 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 해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말입 니다. BC 520년까지 성전공사는 중 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

유다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낼 때,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닷드내와 스달보스내는 다리 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다 사람 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메다 궁성에서 옛 고레 스 왕의 칙령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되 었고, 6:15에서 드디어 성전 건축공 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 니다. 이 때가 BC 516년입니다. 그러 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지 꼭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 입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 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서 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 리 하나님은 정말로 세계 역사의 주 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 이십니다. 이렇게 1차 포로귀환의 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 터 6장은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살 면서 모든 정보들을 공부해서 기록 한 내용들이구요. 7장부터 그를 포함 한 2차 포로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것 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학 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든지 바벨론 땅에서 학자와 제사장 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유다 땅으로 2차 귀환단을 이끌고 돌 아옵니다. 목적과 사명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7:1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 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 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 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준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도 가르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로망은 다윗이었습니다. 말 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성전의 사람 이었던 다윗이 그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 백 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합 니다. 그런데 그 일은 혼자 할 수 없 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 았던 레위지파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귀환단 중에서 레 위사람들을 찾아보았으나, 단 한 명 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 라는 레위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어, 포로귀환 단에 포함시킨 레위사람들의 숫자는 39명이었고, 레위사람들을 섬겼던 느디님 사람 220명을 찾아내어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그리하여 약 1,775명 이 귀환하였다는 내용이 8장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열심 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 차 포로귀환단은 열심히 성전을 건 축했고, 2차로 돌아온 에스라는 열심 히 성경공부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 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역대기'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 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뿌리찾기' 공부를 시켰던 것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역대기는 그 처음 시작이 아담 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는 창 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역대기'라는 역사를 통해 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경공부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역 사를 통해서 저들의 정체성을 교육 시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개혁 운동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 내용 이 9장과 10장입니다. 어떤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제보를 합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인 제사장들과 레 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이방 여인과 섞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에스라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차로 돌아왔던 느 헤미야와 그가 했던 사역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시간도 기대 해 주세요!

dsukim@gmail.com

동성결혼, 이제는 지구촌 쟁점이다!

〈3면에서 계속〉

이처럼 "커밍아웃(자신의 성적 정체 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꽤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모든 국가가 보다 동성애 친화적인 법 안을 도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동성애가 서양에 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들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경제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국에 주입 하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우루과이는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했다. 그러자 몇 몇 국가들이 우루과이에 대한 자금 지 원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 세계은행은 9,000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미뤄버렸

다. 터키는 보수적인 이슬람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유럽연합이 지지하는 정책

을 유지하느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를 사형 에 처하려했던 브루나이의 결정이 무 슬림 관광객과 투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선거에 나선 후보 가 이름을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 안을 지지하기도 한다.

분명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변화가 뒤따르리라는 게 필연 적인 결론은 아닐 것이다.

(Republica de El Salvador)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공화

국이며 수도는 산살바도르이

다. 면적은 21,041km 평방으

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650만명 정

도이며 공용어는 스페인어다. 스페인어권 나라 중 유일하게

나라 이름에 정관사(El)를 붙

이 나라의 특징은 5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

과 독립 이후에 좌우대립과 군

부독재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치열한 내전을 겪었다는 것이

다.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살해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

국외로 망명이나 도피를 하였

사탕수수 외에는 딱히 생산

물이 없어 경제가 낙후되었고,

악명 높은 갱단들이 활개를 치

는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

와 안전과 장래를 위해 미국으

로 불법 이민을 강행하고 있다

(caravan). 카톨릭이 성행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신학적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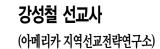
반이 미약하고 미신적이고 주

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아메리카지역선교백서 p.49).

인다.

이메리키지역 헌장의 구조번회와 중남미지역 선교의 세로운 모델 개발(2)





3. 아메리카 지역현황 및 선교의 동향

A. 각 지역 현황

이 내용은 GMS 2019, 아메 리카지역 선교백서에 실린 아 메리카지역 각 지부장들이 작 성하여 제출한 지역현황을 요 약한 것이다.

1) 카나다 지부

캐나다는 북미의 가장 북쪽 에 위치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이다. 이 나라는 비옥 한 토양과 풍부한 어류, 많은 삼림, 석유 등 광대한 천연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캐나

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수백년 동안 캐나다라는 광대한 식민 지는 영국에 의해 통치되었다. 퀘백주는 1763년까지 프랑스 의 통치를 받았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1800년대 후반에 이 식민지 들은 점차 캐나다 자치령을 형 성하여 통일되었고, 완전한 독 립은 1931년에 되었다. 최근 캐나다는 문화적으로나 언어 적으로 고립된 퀘백으로부터 독립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다.

캐나다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세속화가 빠르게 일어 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종교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갖

케냐

지 못하고 있다(2019, 아메리 카지역선교백서 p.11).

2)미국 지부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 에 이르기까지 북미 전역에 걸 쳐 있는 광대한 국가이다. 또 미국은 군사력과 기술력, 농업 에서의 강세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 터 독립했으며 1787년 헌법 제 정으로 세계 최초의 연방부로 확장해 나가면서 50개주로 되 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 된 후 미국은 유일한 세계열강 이 되었지만 지구촌에서 그 미 래의 역할은 불분명하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새겨 져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 어 느 나라도 이처럼 폭넓고 금지 되지 않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가 공적 생활로 부터 종교를 제거하고자 시도 함으로 이러한 자유는 방해받 고 있으며 철저히 사회를 세속 화하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 역선교백서 p.16).

3)멕시코 지부

멕시코연방 국가는 라틴아 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 로 인구는 두 번째로 많다. 이 나라의 다양한 지형은 북부의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남부의 산악과 강우량이 많은 삼림에 까지 이른다. 석유개발과 산업 발전은 국민의 상류층 1/3에 는 이득을 가져다주었지만, 빈 민층 2/3의 가난은 더 심화되 었다.

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 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10-1917년의 혁명은 PRI당의 지 도로 연방 민주주의로 이어졌 으며, 이후 계속 여당이 집권 을 하고 있다. 서민들은 부정 부패와 가난에 지치게 되면서 현재 상당한 수준의 불안이 조 성되고 있다.

멕시코에는 종교의 자유가 행되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 역선교백서 p.43).

4)중미 지부

아메리카의 중앙 지역으로 북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 는 육교에 해당한다. GMS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 스, 코스타리카에서 1989년부 터 사역해 오고 있다.

■과테말라

한보다 조금 큰 면적 (108.889km)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17,120,223명(2018년) 이며, 스페인어를 공용으로 쓰 고 있다. 카톨릭 국가이며 종 교의 자유가 있다. 마야 원주 민 부족이 인구의 40%를 차지 하고, 크게는 22개 부족의 부 족어가 있다. 기독교 보급률은 25-30%되고 문맹률은 40%(인디언의 경우 80-90%)이다 ■엘살바도르 공화국

있으며, 외국의 선교사들은 최 근 들어서야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복음주의 교회는 놀랄 만한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교회 인구의 50% 이상이 20세 이하일 정도로 멕시코의 젊은 이들에 대한 사역이 활발히 진

중앙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

과테말라는 멕시코 밑에 남

kangsungchuel@gmail.com

선교 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 시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타라카 부족 방문

마싱가에서 동북쪽으로 약 170km 정도 떨어진 타라카 부 족은 케냐의 미전도 종족중 하 나입니다. 마싱가에서 약 3시 간 정도 떨어져 있고 인구는 약 10만명이며, 메루부족에 속 한 작은 부족입니다. 이곳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조나단 목사님이 툰야이 교회에서 목 회하고 있고, 그 교회를 전진 기지로 삼고 두 곳의 교회를 개척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3 월 10일 주일예배에 설교를 했 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한 키아나무티 교회는 성도 중 한 분이 기증한 땅에 교회당 기초 공사를 마치고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타라카 부족을 위한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 다. 조나단 목사님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비전이 있어 서 저희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싱가 신학교

마싱가 신학교는 3월 15일 에 27번째 졸업식을 했고, 17 명(일반과정 9명, 특별과정 8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 다. 이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퍼지 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학기가 시작되는 4월 에는 특별과정 1학년 학생들 18명이 들어와 공부를 했습니 다. 저는 선교사 훈련대학과 기간이 같아서 특별과정에는 가르치지 못했고, 선교대학에 서만 강의를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 일반과정에 는 6명의 신입생들이 들어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난 1월부터 시작한 마싱가에 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무 윙기 분교에서 17명의 학생들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써 특별과정 42명, 일반과정 24명, 무윙기 분교 17명 모두 83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 일반과정에 는 1학년 "신약개론1(4복음 서)"과 2학년의 "선교학개론" 을 가르치고 있고, 3학년 학생 들 8명은 띠카에 있는 교회에 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 학기에도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 니다.

선교사 훈련대학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선교 사 훈련 대학이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동안 3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번에는 나이로비에서 자레드 사와 믿음", 마사빗에서 사역 하시는 정혜란 선교사님이 "언 어 훈련", 제가 "성경적 선교신 학"과 "문화인류학과 선교", 컴 퓨터는 신학교에서 일하는 애 나 목사님, 요리는 이애경 선

교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8월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와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3 명의 학생은 조나단 목사님, 알리스 목사님, 그리고 제임스 목사님입니다. 계속 잘 훈련하 고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복음 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학교는 유치원 2반과 초등 학교1-3학년까지 33명의 어 린이들과 4명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일꾼을 구하지 못해 지난 2 월 중단했던 초등학교 건축은 일꾼을 구해서 4월에 다시 시 작했습니다. 교실 4칸의 벽을 다 쌓았고 지붕을 얹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다 충당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마싱가 신학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군들 을 길러 내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

-타라카 지역에 더 많은 복 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 이 편만하게 퍼저 나가도록

-선교사 훈련대학에 더 많 은 훈련생들을 보내 주시고 이 들이 잘 훈련받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이

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아 이들이 되며, 선생님들을 위하 여

-초등학교 건축이 잘 마무 리 되도록

-더위와 강한 햇빛에 지치 지 않고 잘 일할 수 있으며, 영 적, 육적 건강을 위하여

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됨 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

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 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이애경 선교사 드립

isaiah.lee@aimint.org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레교단 6대 신학대학원|탁월한 교수진|저렴한 등록금|한국부 517명 재학|HLC & ATS 정식인가|상시입학|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22)

(리빙스톤교회)



English Bible

PROVERBS

"let the wise listen and add to their learning, and let the discerning get guidance" (1:5).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1:7)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do not forget my words or turn away from them" (4:5). (NIV 2011)

■ WORD & IDIOM

* the wise: 지혜 있는 자들 * learning: 학식 * the discerning: 지각(분별력)이 있는 자들 * guidance: 지침, 안내, 지도 * the fear: 경외, 두려움 * the beginning: 시작 * knowledge: 지식 * fools: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 * despise: 멸시하다, 경멸하다 * understanding: 이해 * turn away from ~: ~로부터 돌아서다, 외면하다, 떠나다.

■ GRAMMAR

(1:5) let the wise listen and add to their learning, 그들의 학식에 지혜로운 자들이 듣고(서) 더하다 and let the discerning get guidance.

지각이 있는 자들은 지침을 얻게 하자 ⇒ 지혜로운 자들은 (잠언 말씀을) 듣 고서 그들의 학식에 더하게(학식이 더 깊어진다는 의미) 하며 지각이 있는 자들은 (삶을 위한) 지침을 얻게 할 것이다.

* let은 누구에게 〈~ 시키다, ~ 하게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사역동사로 분리된다. 그러나 make와 have 등 처럼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허락의 의미가 상당부분 강조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경우 let 앞에 주어(I)가 생략된 문장으로 보고 목적어(the wise & the discerning)가 〈~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역동사의 목적어 다음 에 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동사를 쓴다(주어 + 사역동사 + 목적어 + 원형동사 ~).

* the wise & the discerning: 〈the + 형용사〉로 관용어처럼 쓰이는 명사형으로 복수로 취급한다.

(1:7) The fear of the Lord

the beginning of knowledge,

주께 대한 두려움(경외)

지식의 시작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지혜와 교훈 ⇒ 주께 대한 경외함은 지식 그러나 바보들 멸시하다 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 The fear of the Lord &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fear〉와 〈the beginning〉이 뒤의 전 치사구(of the Lord)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다. 전치사구 (of ~) 는 (~ 에게 속한, ~ 에 대한, ~ 의) 등 의 뜻이 있으므로 문맥을 따라 적절히 해석하면 된다.

(4:5)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이해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do not forget my words or (do not) 나의 말을 잊지 말라 또는

turn away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말라. ⇒ 지혜를 얻고 이해를 얻어라. (그리하여) 나의 가르침(말)을 잊거나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말라.

- *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은 각각 따로 따로 쓸 수 있는 독립된 문장이지만 comma (,) 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었다. 이때 (,)는 〈그리고〉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semicolon(;)은 (;)이전의 문 장과 관련하여 더 말하고 싶은 내용의 독립된 절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문장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and, but, so, for, or, nor〉 등의 접속사를 넣어 (;) 이후의 문장을 해석하면 된다.
- * 〈turn away from them〉 앞에 〈do not〉이 생략된 것은 앞 문장의 〈do not〉이 등위접속사로 연결 된 뒤의 문장에도 그 기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STUDY & THOUGH

-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여 얻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권고한다. 또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1;7, 9:10), 주님의 진노와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구 현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Do I live according to God's word of wisdom not according to my wisdom?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왕상13:15-19)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집 에 데려 감으로써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벤엘에서 살았던 한 타락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과 삶 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책임 있 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한사람 때문에 하나 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경 건의 훈련을 쉬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하겠습니 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잘 지키다가도 끝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가버리면 결국 말씀을 어긴 것이 돼버립니다.

화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왕상13:19)

본문을 통해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쁜 선지자를 만나 타락하고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누 가 죽습니까? 꼬임에 넘어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 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 다.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

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은혜와 도 전을 받으면서도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 는 날까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 님 앞에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 서 평가받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님 앞에서 일대일로 결산할 것입니다.

→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왕상13:20-24)

오늘도 우리는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유혹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해 집으로 들어갔지만 상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 습니다. 그랬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식사 다하고 일 다 본 후에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의 유혹을 받을 때 즉시 물리치지 않으면 치명

타를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명을 잘 감당 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간에라도 뛰쳐나오 지 못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 한번 꼬임에 넘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성 도는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하는 지혜 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연민 때문 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왕상13:25-27)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 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 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까? 자기가 타락하게 만 들고 난 후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 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지, 사단의 궤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 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비 참하게 만든 후에 그 비참하게 된 장면을 또한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 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깨어 기도해 야 합니다(시1:1-2).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오 히려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금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왕상13:28-34)

본문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는데 사자가 물어 뜯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 다. 유다에도 이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 님의 사람이 결국 꼬임에 넘어가 말씀을 순종 하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 니다. 성도들은 우리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들 릴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

았음이 전달돼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의 사람이 실패하고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방 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늙은 선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큰 깨달음입니다. 사 람의 어떠한 실패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

토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왕상14:1-2)

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먼저, 죄 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한다는 것 을 알고 즉시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 니다. 나쁜 사람도 아들이 아파서 병을 고치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악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전에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여로보암은 결국 비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 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최후 지자 아히야가 생각났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선지가가 생각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받을 기회가 왔습니 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내는 데 그것도 변장해서 보내게 됩니다. 기회를 주 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계획2 칠십이레 하나님의 구원계의 도표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지정

구역도 있다. 설교 CD도 무료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돈을

받으며 설교 CD를 왜 아무도

사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 교회

를 통하여 사람들을 축복하여

관대한 영혼을 만들어 내고 싶

다면, 무료 커피를 주고 설교

CD를 주어야 한다. 또는 1년 내

크리스 하지스 목사는 더운

여름날에는 교회 정문에 아이

스크림 트럭을 대고 나가는 성

도에게 무료 아이스크림을 제

성도로 위장한 방문자가 가

족 문제에 있어서 큰 것 한 가

지는 안전이다. 부모가 자녀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예

배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로 다

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자녀

의 교실은 깨끗해야 하고 안전

해야 한다. 안전은 또한 점검과

정을 포함한다. 누군가 교실에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내 다른 선물을 줄 수도 있다.

로 배부한다.

공한다.

평생 교인 만든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어떤 교회도 후각을 과소평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

각은 단기 기억에서 가장 중요

하지만 후각은 장기 기억에서

가장 강하고 선명하다. 어떤 냄

새를 맡았는데 몇 년간 잊었던

기억이 샘솟는다면 후각이 작

교회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냄새를 풍길 가능성이 있

다. 곰팡이 냄새는 나쁘고, 커피

냄새는 좋다. 표백제 냄새는 나

쁘고 감귤 냄새는 좋다. 역겹고

나쁜 냄새를 풍기는 화장실을

가진 교회가 많다. 작은 부분의

관심 부족이지만 손실이 크고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

가능한 최선을 다해 새로운

마음으로 정문이나 교회의 입

구에 가서 냄새를 잘 맡아봐야

용한다는 것이다.

처치리더스.컴, 교회방문 잠재적 교인 오게 하는 8가지 창의적 방법 소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은 것이며, 더 큰 문제점은 전도된 새 신자를 붙잡지 못하며,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데 익숙하지 못한 데 있다.

특히 교회 방문자들은 보통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탐 색형: 교회를 옮기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방문형: 출장 등의 목 적으로 일회적으로 오게 된 사람 △전도형: 복음전도를 통해 교 회에 오게 된 사람 △인도형: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이사 등의 이유로 교회에 오도록 한 사람 △임시형: 중장기 출장 등 개인사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출석하게 된 사람 △구도형: 하나 님을 믿고 싶은 동기에 의해 교회에 오게 된 사람.

그렇다면 교회가 관심을 갖고 피드백까지 깐깐하게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방문자들이 어떻게 느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가다. 다시 말해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 는 것"은 환영을 받는 사람의 입장 즉 방문자의 마음에서 결정 되는 것이다.

그레그 엣킨슨(Greg Atkinson, First Impression Conference 창설자) 목사는 교회 개척과 관련해 60여 명의 사람들과 일하 며, 교인 수가 1만5천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 서 그는 일반적이며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 는 8가지 노하우를 말해준다(8 Reasons Why People Aren't Coming Back from a Secret Shopper).

1. 온라인 현관문(The Front Door)

교회의 물리적 내부에 첫발 을 딛기 전에 방문자는 아마도 교회 인터넷사이트를 이미 찾 아봤을 것이다. 교회마다 교회 사이트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은 첫 방문자를 위한 부문 이다.

일단 클릭하면, 질문사항이 나 예배 시간·지리·주차 안내· 바라는 점·복장 안내와, 방문자 가 반드시 들리게끔 하거나 첫 방문자가 책자를 받을 교회의 안내 데스크를 보여주는 페이 지로 이동해야 한다. 아이가 있 는 가정이 주차하기 좋은 곳이 있는가, 경쾌한 음악과 적절하 고 실질적인 성경적 설교의 분 위기인가, 청바지나 반바지는 괜찮은가 등과 같은 것이다.

2. 냄새

팀 스티븐슨(Tim Stevens)이 생각할 때, 모든 성장 교회가 지녀야 하는 세 가지 '성장 단 속' 중에 하나는 주차를 계속해 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팀 스티븐슨은 "바로 이런 이 유 때문에 방문자 전용 주차가 정말 결정적이다. 교회에 첫 방 문이 어렵다면, 이들은 오지 않

법이 혼동되고 시간이 길고 어 려우면 방문자가 교회에 다시 오지 않게 된다. 현명한 교회는 첫 방문자를 위한 접수대 표시 가 있고, 자녀를 교회 부서에 등록하는 과정을 빠르고 순조 롭게 만들어 놓는다.

일반 교회 출석자는 접수 전 화기에 가서 전화번호를 누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먼저 방문자의 마음 헤아려야 웹사이트부터 냄새, 오갈 때 주차안내, 안전한 자녀교실...

을 것"이라고 말한다. 방문자는 조용히 와서 특별 주차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방 문하는 걸 원해서 일반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근처에 주차하게 하면 고마워 한다. 이것은 이미 처음 교회에 방문해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 한 경험을 하는 이에게 친절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커다란 부 지를 가진 큰 교회를 방문하는 이에게는 특히나 그럴 것이다.

4. 자녀 부서에 아이를 등록하는 방 거나 카드를 잘 긁을 수 있지 만, 방문자는 이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도와줄 봉 사자가 있는 유인 창구가 필요 하다. 그래서 맡은 사람이나 봉 사자가 아이의 반에 가서 어떤 상황이고 아이를 데려오는 방 법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5. 무료 배부

자비로운 영혼을 가진 교회 는 미묘하지만 강력하다. 앨라 배마주 버밍햄 하일랜드 (Highlands)교회 크리스 하지 스(Chris Hodges) 목사는 이를 잘한다. 이 교회에서는 커피를 팔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 있다면 문제가 돼 잠재적 성도 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다.

아이의 봉사자가 잘 교육받 아 아이를 데리러 올 때 부모 이름표를 요청하도록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 부모가 평 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데 큰 도움이 된다.

7. 목사님과의 쉬운 만남 담임 목사와 잘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미묘하지만 강 력한 것을 말해준다. 미국 대형 목사조차도 예배 후 성도와 만 나 안고 인사하려는 국제적이 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에게 안전 문제로 경 호원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때에 원하는 성도에게 기도하 려고 한다.

텍사스 주, 록월의 레이크 포 인트(Lake Pointe) 교회의 스 티브 스투룹(Steve Stroope) 목 사나, 콜로라도 스프링스 뉴라 이프(New Life)교회의 스티브 보이드(Steve Boyd) 목사처럼 어떤 교회는 지정 '방문자 부 서'가 있다. 유타 주의 찰스 힐 (Charles Hill)처럼 '만남의 장 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애틀랜 타 12스톤(12Stone)교회의 케 빈 마이어스(Kevin Myers) 목 사처럼 어떤 목사는 단에서 내 려와 사람들과 만나 기도하기 도 한다. 피닉스 언덕의그리스 도교회(Christ's Church of the Valley)의 단 윌슨(Don Wilson) 목사처럼 악수하며 교회 주위 를 걷기도 한다.

LA 모자이크교회의 어윈 맥 매너스(Erwin McManus) 목사 는 '소모임(After Party)'을 가 지고 있어서, 목사가 나와 새신 자와 만나기도 한다. 이, 큰 교 회에서는 특히, 너무나 많은 방 문객이 교회에서 들어서게 되 면 예상되는 인기 록스타나 만 나지 못하는 목사 낙인 효과를 지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8. 강한 끝맺음

누군가 교회에 들어설 때 영 접부나 주차 봉사자가 '안녕하 세요'나 '환영합니다'라고 단순 히 인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른 단계로 가려면 예배 가 끝날 때 '안녕히 가세요'나 ' 한 주 잘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봉사단을 두어 첫 인상을 남겨 야 한다.

이는 아침 시간대에 인사로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방문자를 보내게 된다. 이 8가지를 하면 첫 번째 방문 자가 돌아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을 더 자주 하게 될 것이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듯한 시선을 노래에 담아

한다.

3. 주차

'노래를찾는사람들' 전 멤버 이혜원 2집 'Flying High' 출시

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 지병이었던 만성신장병으로 남 온 이혜원의 2집 'Flying High' 편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고, 가 출시됐다.

2012년 발매된 1집 음반 을 바라보게 됨으로 삶의 터닝 'Embraced in Harbour Pointe' 포인트를 통과하고 새로운 삶 에 이어 7년 만에 내놓았다. 이 을 살고 있는 그녀가 인간으로

7년 만에 Heavenlee 라는 새 앨범은 1집 앨범 출시 후 오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통해 이 이번 앨범은 CCM곡으로 전과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



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성 장했는지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역작이다.

음반 동명 타이틀 곡 'Flying High'는 피아노와 더블베이스 의 단순한 악기 편성과 담백하 고 절제된 보컬로 메시지를 전 달한다. 이 곡은 '하나님, 주님' 처럼 직접적으로 기독교적인 다. 가사를 쓰지 않으면서도, '보이 던 그곳으로/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항상 동행하시는 레트로팝 스타일의 노래로 경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두려움

없이 걸어 갈 것을 나지막이 고 백하며 결코 녹녹치 않은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천 국의 키를 움켜쥐고 사는 사람 들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곡이

knees'는 재즈 보컬을 전공한 가수의 달란트를 십분 발휘한 쾌하지만 비장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역설한다.

두 곡 모두 1집 음반에 비해 음악과 내용 양쪽 모두 더 대중 적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아티스트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충실히 드러냄으로써 한국의 힘찬 가스펠 스타일의 아카펠 CCM 팬들에게 한층 친숙하고 지 않는 곳을 향해/내가 꿈꿔왔 라로 시작하는 'Dust off your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며 솔 로가수 겸 찬양사역자로 활동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러이스 미션





ABHE 정회원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기독교 상담학부 공개강좌

참석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은 입학금 면제 해택

주제: "진정한 나를찿자"

장소: 그레이스 라이브러리 GL1 강의실

일시: 6/22/2019 토요일, 오전9:30-오후1:00 LA Extension 강의 센터 운영(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대상:목회자부부,신학생,평신도및상담에관심있는모든분들

강좌1: 참 자아발견을 통한 중독치유(술,마약,도박,인터넷,성,종교중독 치유)

권오균 교수(Rev. Paul Kwon, Ph.D.)

주정부 인정 중독치유 상담사:CATC-V;LAADC-CA - 풀러신학대학원박사(Ph. D.)

강좌2: "나라는 넌 누구냐?"(욱하는 성질 치유)

리디아 전 교수(Lydia Chun Psy.D.) - 공인 임상심리학 박사, BIOLA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